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research of establish for GURO-typ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care system

서 종 건

연구책임

구로구 구정연구반

서종건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 위촉연구원

연구지원

가톨릭대학교

이분새 가톨릭대학교 박사수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구로구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에 기반을 둔 다문화 돌봄 체계 구축해야

2015년 대비 2020년 구로구 외국인주민 자녀 39.4% 증가

2020년 1/4분기 기준 구로구의 아동·청소년은 63,81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1/4분기 대비 76,335명에서 12,522명, 16.4% 감소한 것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 역시 16.4%에서 14.6%로 줄어들었다. 구로구 전체 인구 역시 같은 기간 15,944명이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같은 기간 3.5%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동·청소년의 감소폭은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감소 추세와 달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이하 외국인주민 자녀)은 2,071명에서 2,886명으로 815명, 39.4% 증가하였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 코호트는¹⁾,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업 및 이사 등을 이유로 감소하기도 하지만, 중도입국자녀들이 주로 포함되는 15세~19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방치로 인한 방과후 돌봄 수요 증가

외국인주민 부모들은 내국인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 대한 돌봄의 제공과 학습 도움에서 어려움을 겪기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곧 방과후 돌봄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구로구의 경우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전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기관이 존재하나, 이와 별개로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 역시 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수요 증가는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야간 돌봄 및 토요 돌봄, 학

¹⁾ 코호트는 특정한 경험(특히 연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체를 말하는 것으로 출생 코호트는 5년 혹은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 예를 들어 2015년 5세~9세였던 아동들은 2020년 10세~14세에 해당

습 지도 등 방과후 돌봄 기관 역할 전반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은 방과후 돌봄 기관이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역 정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 및 방과후 돌봄기관 역량 강화

실무자 및 학부모 대상 질적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의 역할 강화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 구축 및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이었다. 공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이야기 되는 돌봄정책의 변화는 민·관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민·관 협력체계의 활성화는 방과후 돌봄 수요의 연계 및 지역자원의 적절한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 및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주민 가정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며, 외국인주민 가정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아닌, 비슷한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 주민과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와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돌봄 허브에 대한 실무자들의 요구는 외국인주민 가정의 방과후 돌봄에 있어 고려해볼 지점이다.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과 방향은 지속적인 검토의 대상이나 일차적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의 통일된 다문화 교육 및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중점적 돌봄 제공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문화 돌봄 허브는 곧 기존 돌봄체계 및 지역자원의 활용과도 연계되기에, 마을돌봄조정관 등의 역할 강화를 필수로 하며, 필요할 경우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할 기관의 설립이나 인력의 확충을 요한다.

상호문화적·일상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온마을 돌봄 실현

방과후 돌봄 기관의 외국인주민 자녀 증가는 곧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 및 내국인 자녀와의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 자녀들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내국인 자녀들의 다문화 경험에 대한 점수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실제 현상과

인식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관계와 달리 일부 내국인 부모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것은 내국인 부모들과 외국인주민 부모 사이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내국인 부모들은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한다고 생각하여 외국인주민 자녀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내국인 부모의 거부는 중국동포 등 다문화로 이어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합된 형태이며,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부모의 방치와 다문화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낙인과 차별 문제의 해결은 부모들의 관계 및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베를린 노이켈른구의 ‘도시지역 어머니 모임’ 형태의 일상적인 부모 교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로구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일상적’ 형태의 접근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문화교육에 기반을 둔 내국인 부모 교육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의 경우 청소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내·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존재하기에 청소년 돌봄을 포함한 융합형키움센터의 운영을 시범사업화 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온마을 돌봄 실현에 있어 구로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_연구 내용	4
02 선행연구 검토	7
1_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현황	8
2_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문제	21
03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인식조사	27
1_연구개요	28
2_기초현황	29
3_자료분석	34
4_소결	51
04 돌봄 기관 실무자 및 학부모 질적조사	53
1_연구개요	54
2_돌봄 기관 실무자	57
3_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74
4_소결	91
05 결론 및 정책제언	95
1_결론	96
2_정책제언	98
참고문헌	108
부록	111

표 목차

[표 1-1]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방향	9
[표 1-2] 초등돌봄교실 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10
[표 1-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15~2019)	11
[표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 목표	12
[표 1-5]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13
[표 1-6] 서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14
[표 1-7] 서울시 대비 구로구 아동·청소년 비중	15
[표 1-8] 구로구 아동·청소년 추이	16
[표 1-9] 중도입국자녀 어려움 주요 원인	24
[표 2-1] 설문조사 참여 인원	29
[표 2-2] 내국인·외국인주민 비율	29
[표 2-3] 평균 연령	30
[표 2-4] 가족 경제 수준_1	31
[표 2-5] 가족 경제 수준_2	31
[표 2-6] 부모님 생존 여부	32
[표 2-7] 아버지 직업	32
[표 2-8] 어머니 직업	33
[표 2-9]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시간	34
[표 2-10] 토요일 평균 이용시간	34
[표 2-11]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1	35
[표 2-12]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2	35
[표 2-13]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3	36
[표 2-14]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4	36

[표 2-15]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5	37
[표 2-16] 돌봄 품질 만족도_1	38
[표 2-17] 돌봄 품질 만족도_2	38
[표 2-18] 돌봄 품질 만족도_3	39
[표 2-19] 돌봄 품질 만족도_4	40
[표 2-20] 센터 이용 만족도_1	41
[표 2-21] 센터 이용 만족도_2	41
[표 2-22] 센터 이용 만족도_3	42
[표 2-23] 친구관계 만족도_전체	45
[표 2-24] 친구관계 만족도_내국인	46
[표 2-25] 친구관계 만족도_외국인주민	46
[표 2-26] 친구관계 만족도_다문화 기관	47
[표 2-27] 친구관계 만족도_일반 기관	47
[표 2-28] 학업 성적 만족도	49
[표 2-29] 상호 인식과 경험_1	49
[표 2-30] 상호 인식과 경험_2	49
[표 3-1] 연구 참여자 현황_1	57
[표 3-2] 분석 결과_1	58
[표 3-3] 연구 참여자 현황_2	74
[표 3-4] 분석 결과_2	75
[표 3-5] 실무자 및 주민 현안_1	91
[표 3-6] 실무자 및 주민 현안_2	91
[표 4-1] 노이퀼른구와 구로구 사례 비교	103
[표 4-2] 연구 과제 도출	106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12
[그림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14
[그림 1-3] 구로구 아동·청소년 현황 추이선 (2016~2020)	16
[그림 1-4] 구로구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 증감	17
[그림 1-5]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18
[그림 1-6] 구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20
[그림 1-7] 중도입국자녀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여부	25
[그림 2-1] 돌봄 연령대 비중	30
[그림 2-2] 기관별 이용 차이	37
[그림 2-3] 전반적 품질 만족도	40
[그림 2-4] 센터 이용의 긍정적 측면	43
[그림 2-5] 센터 이용의 추가적 욕구_1	44
[그림 2-6] 센터 이용의 추가적 욕구_2	44
[그림 2-7] 친구관계 만족도_외국인주민 자녀 비교	48
[그림 2-8] 상호 인식과 경험_3	50
[그림 3-1] 외국인주민 자녀 적응 문제	92
[그림 4-1] 민·관 협력 강화	100
[그림 4-2] 다문화 돌봄 허브 개요	101
[그림 4-3]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및 활용	105

01 서론

- 1_연구배경 및 필요성
- 2_연구내용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현재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이에 발맞추어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에 대한 공적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 구로구는 공적 돌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동포 등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²⁾ 아동·청소년(이하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역시 포함됨
- 구로구의 5세 이상 외국인주민 자녀는 2020년 현재 2,8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도입국자녀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외국인주민의 직업적 특성과 맞물려 돌봄의 방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초등 돌봄을 위주로 구축되고 있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적 돌봄 체계구축과 맞물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2) 연구의 필요성

- 구로구의 외국인주민 돌봄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은 단순히 돌봄만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²⁾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해 등록절차를 밟은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기존 다문화 주민 대신 '외국인주민'으로 서술할 예정

- 실제로 기초탐색 과정에서 확인 결과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방과후 돌봄 기관들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외국인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등 사회적 공간으로써 자리 잡고 있음
- 방과후 돌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돌봄 제공은 단순히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내국인 주민과의 통합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및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탈선·비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돌봄에서 방치 된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경우 이와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서 더욱 취약할 수 있기에 돌봄 현장 및 돌봄 정책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돌봄 정책은 외국인주민 청소년 및 내국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에 대한 돌봄 기능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은 서울시 및 정부의 정책 변화와도 연결되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현안 파악 등을 바탕으로 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2_연구 내용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구로구에서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는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과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이 가진 방과후 돌봄에 대한 현안을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방과후 돌봄의 당사자인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기관 만족도 조사 및 다문화 인식·경험 조사를 통해,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안 및 과제는 구로구의 방과후 돌봄 및 연령대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및 서울시의 방과후 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정책 개선 및 개발을 요구할 수 있음

2) 연구방법 및 연구 범위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현장답사,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 인식조사,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 및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주민 부모의 간담회와 인터뷰로 구성
 - 문헌연구는 서울시 및 구로구 온종일 돌봄에 대한 추진 현황과 돌봄 사업 현황 및 방과후 돌봄 및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확인
 - 현장답사는 구로구 외국인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방과후 돌봄 기관의 주변 환경 조사를 통해 센터 이용에 대한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함
 -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 인식조사는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에 대한 품질 만족도와 다문화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
 - 실무자 간담회 및 인터뷰의 경우 구로구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과후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및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후 돌봄의 현안을 파악하고자 함

- 내·외국인주민 부모 인터뷰는 개별적·심층적 면접을 통해 방과후 돌봄 이용의 긍정적 모습과 과제를 확인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인식조사 및 실무자 간담회와 내·외국인주민 부모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다문화 방과후 돌봄의 현안을 파악하고 통합적 돌봄이 밑바탕이 된 “구로형” 다문화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언



02

선행연구 검토

1_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현황

2_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문제

02 선행연구 검토

1_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현황

1)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은 2017년 현 정부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것에서 비롯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의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범정부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음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과 함께하여 서울시 역시 온종일 돌봄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존 ‘온종일 돌봄’에서 지역 중심의 ‘온마을 아이돌봄’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
- ‘온마을 아이돌봄’은 ‘아동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영유아 및 아동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서울연구원, 2019)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돌봄 컨트롤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이전의 사업 추진에서 진일보하였음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의 비전은 ‘아이 키우기 걱정없는 도시 서울 구현’을 기초로 하여 [표 1-1]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적 초등돌봄 30% 달성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아이돌봄의 공적책임을 초등범위로 확충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돌봄 인프라 400개소를 확충하여(서울연구원, 2019) 촘촘한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돌봄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키움센터 운영모델(일반형·융합형·거점형)을 구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및 자치구 중심의 돌봄협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로구의 경우 돌봄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을 명시하는 서울시의 돌봄 정책 추진방향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1-1]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방향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방향	
아이돌봄 공적책임 초등범위로 확대	• 초등생 공적돌봄 인프라 확충(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 아동의 자율성 존중한 PBL프로젝트 기반 돌봄 콘텐츠 개발 및 적용
	• 아동·부모·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돌봄 공동체 구축
수요별 맞춤·지원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 촘촘한 수요자 맞춤 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충
	• 초등돌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일반형·융합형·거점형) 구축 및 지원
초등돌봄 연계·협력 통합전달체계 개선	• 지자체-교육청간 돌봄협의회 상시 운영 지역중심통합지원체계
	• 초등돌봄 기관·단체 간 협업체계 기반 자치구 중심의 돌봄협의회 운영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icare.seoul.go.kr>) '온마을 아이돌봄사업 비전'

2)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운영 현황

-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현재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나 2020년 현재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서울연구원, 2019)
 - 또한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지원사업을 포괄하여,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 하는데 초석을 마련
 - 이를 위해 기초적인 초등돌봄교실 현황과 함께 요보호 대상자의 방과후돌봄을 담당해 왔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1) 초등돌봄교실

-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2022년까지 학교돌봄을 10만 명(전국 기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서울연구원, 2019)
 - 이것은 곧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서울시 역시 이에 호응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제로화’를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돌봄교실 500실을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1,930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 돌봄 이용 대기자를 우리동네키움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이용 공백의 최소화를 계획 중

[표 1-2] 초등돌봄교실 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단위: 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설 교실 수	50	250	80	70	50
운영 교실 수	1,430	1,730	1,810	1,880	1,930

출처: 서울연구원(2019)

(2)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마을돌봄을 담당하는 주요 방과후 돌봄 공급 기관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지역사회 연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보건복지부, 2020a)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거 존재하던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 간 지역아동센터 수는 2014년 408개소에서 2019년 43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용 아동도 11,487명에서 11,51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3월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원은 11,514명으로 정원(12,594명)과 대비하여 현원은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표 1-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15~2019)

(단위: 개소,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센터 수	416	422	426	430	433
이용 아동	11,487	11,380	11,384	11,774	11,514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18), 서울연구원(2019),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이용)' (2020년 7. 2. 검색)

-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주요한 기준은 '소득수준'으로 일반아동이 이용 가능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현재도 일반아동의 이용 비율은 20%로 제한되어 있음
 - 일반아동의 기준은 역시 소득기준은 초과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특성기준이나 연령 기준이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기 때문에(법정부공동추진단, 2018), 지역 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이나 돌봄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낙인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
 - 참고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별관리아동'으로 분류되는데 국회의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특별관리아동의 증가세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보고서에서는 최근 5년간 대략적으로 1.5배가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음(박선권, 2019)

(3) 우리동네키움센터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형 버전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새롭게 도입 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20b),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의 키워드 중 하나로,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온마을 돌봄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틀로의 전환을 꾀함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6월, 4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소되었으며 2020

년 6월 말 기준 22개 자치구에 82개가 운영 중(그림 1-1 참조)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는 400개소를 확충 예정 (표 1-4 참조)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welfare/>) 온마을 아이돌봄

[그림 1-1]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표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 목표

(단위: 개소)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00	104	98	138	60
일반형·융합형	375	102	90	123	60
거점형	25	2	8	15	-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크게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융합형 키움센터는 초등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에서 선정된 마을돌봄조정관이 돌봄 기관의 연계 및 자원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함

[표 1-5]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유형 및 목적		
유형	형태	목적
일반형 키움센터	66㎡ 이상 (소규모, 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 •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
융합형 키움센터	210㎡ 이상 (중규모, 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 •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 제공
거점형 키움센터	1,000㎡ 이상 (대규모, 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체육, 부모교육 강화 • 일반형·융합형 단점 보완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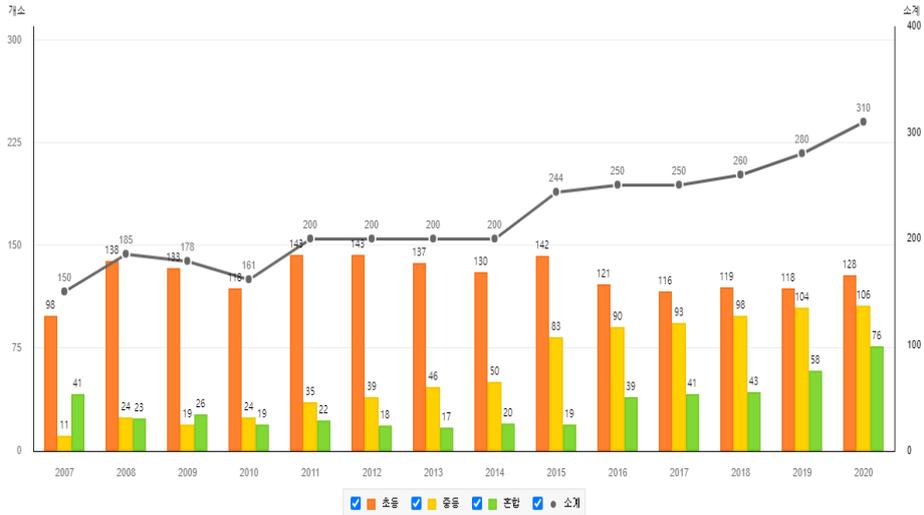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상 차이점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일시 긴급돌봄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이며(참여연대, 2019) 돌봄 제공의 유연성이 큼
 - 유연성이 크다는 것은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는데, 그로 인해 보다 많은 아동을 포괄할 수 있지만 아동 맞춤형의 심도 있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아동의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돌봄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참여연대, 2019)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범정부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상 마을돌봄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동과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여성가족부, 2018)
 - 지역아동센터와 역할은 유사하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등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서울연구원, 2019)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등 민간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대상임



출처: e-나라지표 (<http://index.go.rk>),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그림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5개소에서 2017년 23개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8년 24개로 증가하한 후 정체되다 2020년 현재는 23개로 다시 줄어들었으며, 초등 위주의 기관과 혼합형 기관의 경우 증감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6] 서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소계	초등	중등	혼합
2016	15	5	5	5
2017	23	13	4	6
2018	24	15	5	4
2019	24	11	5	8
2020	23	12	5	6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3) 구로구 돌봄 현황

- 구로구는 2019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함
- 구로구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함께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확대를 꾀하고 있음

(1) 구로구 아동·청소년 현황

- 2020년 현재 서울시의 아동 청소년은 1,489,528명이며 이중 구로구의 아동 청소년은 63,81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6%로 서울시 자치구 중 10번째에 해당

[표 1-기] 서울시 대비 구로구 아동·청소년 비중

(단위: 명, %)

자치구	전체인구	아동 및 청소년					
		합계	비율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서울시	10,013,781	1,489,528	14.9%	300,471	368,576	374,560	445,921
구로구	438,308	63,813	14.6%	15,109	16,815	15,075	16,814
종로구	161,984	20,510	12.7%	3,563	4,784	5,234	6,929
중구	136,469	15,489	11.3%	3,829	3,911	3,294	4,455
용산구	246,165	32,735	13.3%	7,290	8,141	7,861	9,443
성동구	307,193	43,170	14.1%	10,912	10,742	9,501	12,015
광진구	365,990	49,551	13.5%	9,816	11,973	12,391	15,371
동대문구	362,793	47,736	13.2%	10,501	11,652	11,208	14,375
중랑구	400,678	52,548	13.1%	11,462	12,935	12,539	15,612
성북구	454,532	70,288	15.5%	13,547	17,286	17,479	21,976
강북구	316,750	40,470	12.8%	7,480	9,705	10,245	13,040
도봉구	333,495	47,228	14.2%	8,791	11,402	11,806	15,229
노원구	535,495	91,546	17.1%	14,977	20,556	24,579	31,434
은평구	482,509	71,243	14.8%	13,855	17,255	18,105	22,028
서대문구	325,875	46,263	14.2%	9,657	11,303	11,100	14,203
마포구	386,086	56,467	14.6%	12,684	13,871	13,909	16,003
양천구	460,532	85,107	18.5%	12,918	20,214	24,587	27,388
강서구	595,703	89,965	15.1%	20,010	23,212	21,506	25,237
금천구	251,370	30,644	12.2%	7,075	7,674	7,117	8,778
영등포구	404,766	53,326	13.2%	13,927	13,759	11,815	13,825
동작구	407,802	55,941	13.7%	12,293	14,153	13,185	16,310
관악구	516,662	55,913	10.8%	11,673	13,447	13,335	17,458
서초구	434,801	81,881	18.8%	14,443	21,526	22,611	23,301
강남구	549,898	98,878	18.0%	14,971	23,751	28,543	31,613
송파구	680,883	114,145	16.8%	24,020	29,230	28,731	32,164
강동구	457,042	74,671	16.3%	15,668	19,279	18,804	2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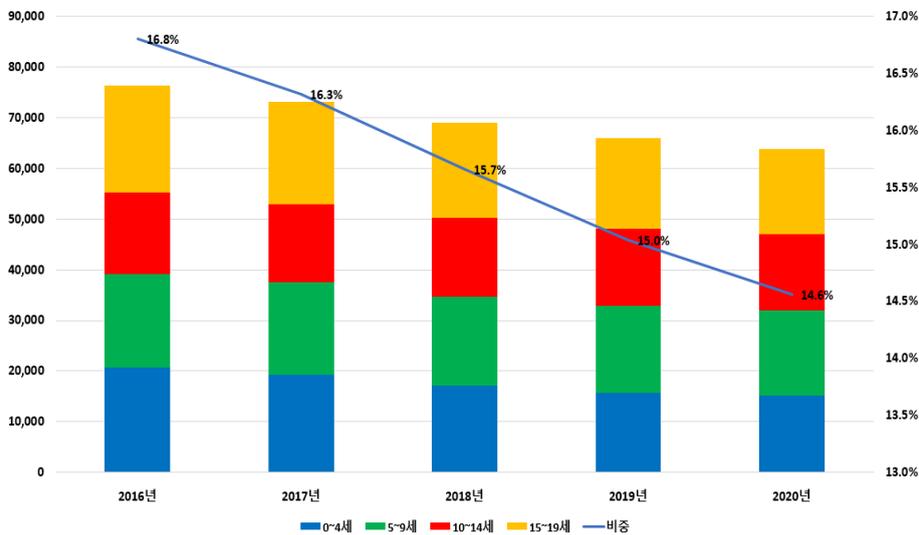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 구로구 아동·청소년은 2015년 76,335명에서 2020년 63,813명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16.8%에서 14.6%로 감소
 - 그러나 구로구 전체 인구가 같은 기간 15,944명, 3.5%가 감소한 반면, 아동·청소년은 12,522명 16.4%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0~4세 및 15~19세 연령대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0~4세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해석되며 15~19세의 경우 학업으로 인한 타 지자체로의 이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표 1-8] 구로구 아동·청소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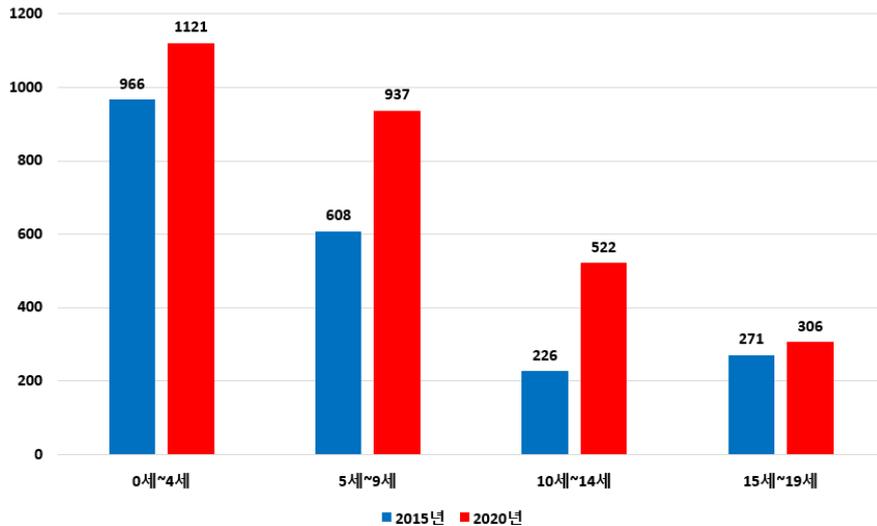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아동 및 청소년 추이					전체 인구 대비
		합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15년	454,252	76,335	20,719	18,417	16,098	21,101	16.8%
2016년	447,874	73,071	19,196	18,345	15,461	20,069	16.3%
2017년	440,396	68,963	17,188	17,558	15,492	18,725	15.7%
2018년	438,889	65,988	15,778	17,084	15,214	17,912	15.0%
2019년	438,308	63,813	15,109	16,815	15,075	16,814	14.6%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그림 1-3] 구로구 아동·청소년 현황 추이선 (2016~2020)

- 이와 비교하여 그림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의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령 코호트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연령 코호트가 15세에서 19세의 연령대로 진입하면 중도 입국자녀들의 포함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그림 1-4] 구로구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 증감

(2) 구로구 아동·청소년 돌봄 기관 현황

- 구로구의 아동·청소년 돌봄 기관은 크게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함께 학교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및 온종일 돌봄센터 등으로 구성됨
 - 이중 온종일 돌봄센터의 경우 방과후 및 주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로구 내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게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아이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함
 - 온종일 돌봄센터는 33㎡이상의 공간을 가진 작은도서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운영하고 있음

- 구로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아동·청소년 돌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 방과후 돌봄 기관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돌봄 기관의 경우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과 ‘구로청소년센터’가 존재하며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은 온종일 돌봄센터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운영 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구로구에 소재한 돌봄 기관 중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구로구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① 지역아동센터 현황

-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기준 총 24개소이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아동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구로구청, 2019)
-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를 살펴보면 구로4동에 3개소 등 1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신도림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지 않음(구로구청, 2019)



[그림 1-5]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 구로구의 지역아동센터들은 공부방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간 지역에서 터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기에,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한 구로구의 돌봄 네트워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 돌봄에 있어 해당 지역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구로구의 경우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최소 30%에서 최대 70% 이상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자연스럽게 다문화 중심의 지역아동센터로 변화하는 경우도 존재함
 - 지역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들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요구
- 실제 구로구의 경우 지구촌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주민 자녀의 적응과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기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에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주변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②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구로구의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0년 현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5동, 개봉3동, 천왕동, 고척1동 등 7곳이 개소되었으며, 10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에 있음
- 2020년 4월에서 개소한 구로3동 키움센터의 경우 융합형 키움센터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 융합형 키움센터는 일반적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달리 방과후 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마을 권역별 돌봄 거점, 지역아동센터와 협업, 긴급·주말 돌봄 강화 및 급식 제공 등 역할을 담당
 -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융합형 키움센터에는 마을돌봄조정관이 파견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업 및 돌봄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



[그림 1-6] 구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구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양적 증가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구로 선정된 만큼 마을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음
-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처럼 외국인 주민 아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에 실무자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교육 등이 필수적 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위주로 돌봄을 제공하기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 내 소외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돌봄 제공이 향후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2_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문제

1)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연구

-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돌봄 문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맞물려 있으며, 가족의 구성 및 형태의 차이에 따라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나 돌봄 문제의 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중국동포와 같이 구로구에서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후술할 중도입국자녀 문제나 부모와의 관계 등에 한정되어, 일반적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과 관련한 연구도 주로 문화·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1) 외국인주민 자녀 연구 경향

-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적응(김동희, 2016; 심미영 외, 2013; 이상균 외, 2012) 및 문화적응으로 발생하는 문제나(김영식·이종욱, 2013; 장덕희·신효선, 2010; 전재일·신효선, 2008) 인종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이상호 외, 2015)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김순규, 2011; 김인숙·이경희, 2011; 박주희·남지숙, 2010) 2010년대 초반 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지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과후 언어 교육이나(김세민·유강수, 2015; 노정은, 2015),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연구(서혜전·이미애, 2015), 체육활동을 통한 적응(강민욱·권순용, 2017)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큰 틀에서 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남부현·김경준, 2018; 송민경, 김진원, 2017; 윤은영, 2017) 역시 방과후 돌봄 및 방치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음

(2) 외국인주민 자녀 방과후 돌봄 경험

-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동의 학습활동 보충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김순규 외, 2016)
- 이처럼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은 아동의 학교 외의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 역시 학교 외의 일상생활의 접근과 개입이 중요
- 김순규 외(2016)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 중 생활영역인 또래관계와 시설·환경이 적응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과 지역사회 도서관, 놀이터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음(김순규 외, 2016)
- 한편 연령대는 차이가 있으나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선애 외, 2013) 역시 도출되었음
 -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교사의 아동일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성 차원에서 더욱 적응이 높다는 것이 도출
 - 위의 결과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돌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이기에 돌봄 기관 및 보육 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및 이해 교육이 중요함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장미정(2012)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음
 - 해당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다문화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인데, 다문화 교육이 의미 있는 변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장미정, 2012)
 - 장미정의 연구는 다문화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문화 교육이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중도입국자녀 적응과 방치

-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하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하게 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의미(남부현 외, 2016, 230-231)
- 중도입국자녀의 입국 전 국적은 대부분 중국(약 90%)으로, 이중 중국동포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양계민·조혜영, 2011)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중국동포의 비중이 매우 높기에 중도입국자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1) 중도입국자녀 어려움 유형

- 중도입국자녀들은 친부모와 같이 살 목적으로 입국하지만, 한국생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의미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달리 언어소통이나 사회·문화적 차이, 일상생활 및 학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남부현·김경준, 2018)
- 중도입국자녀들이 적응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초기 적응과정으로 한국 사회에 재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좌절과 분노 등을 겪게 됨
 -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곧 자신들이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신이 본국에서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 및 가치관과 다른 한국사회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체성 갈등도 나타남(이수진, 김현주, 2016)
- 학업에서의 부진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겪거나(남부현·김지나, 2017; 박봉수, 2013) 소외나 왕따 등으로 학업지속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
 - 이 때문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비중은 각각 60.5%와 36.7% 정도로 확인되었음(남부현·김경준, 2018)
- 학업 문제는 후기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화되어, 대학진학 등 학업지속에서 20세 이상 중도입국청소년의 18.3%만이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 이상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용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진로문제의 고민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배상률, 201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들이 어려움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표 1-9 참조)

[표 1-9] 중도입국자녀 어려움 주요 원인

중도입국자녀 어려움 원인 및 내용	
유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 • 외국인 밀집지역 중도입국청소년 및 분포 파악 •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 배치지역 및 지원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부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중도입국청소년과 정책적 사각지대 현황 •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경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 및 학부모의 정보 제공 경로 파악 •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마련 및 외국어 서비스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준비 없는 입국, 체류기간의 불안정, 고민 털어놓을 지지기반 부족 • 경제적 어려움 등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 경험 • 각각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의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설계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전문가 부재 • 한국어 심화 학습 필요성 검토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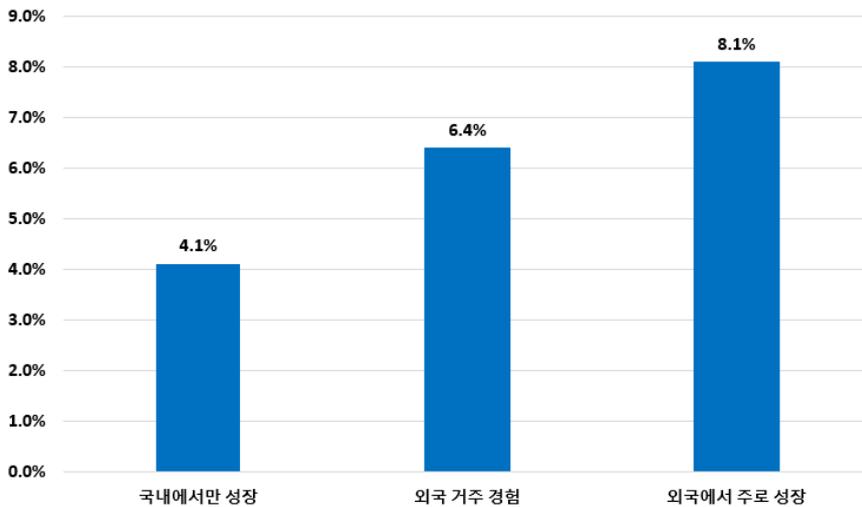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재구성

- 구로구는 서남권의 한 축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이하 온드림 교육센터)’의 영역권에 해당하며, 서울시여성재단에서는 구로구의 중도입국자녀들이 온드림교육센터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 그러나 온드림교육센터의 지리적 위치문제와 함께 실제 이용 가능한 숫자 및 교육실적으로 파악해 볼 때, 구로구의 중도입국자녀들이 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구로구의 경우 구로청소년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미활동 지원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2) 중도입국자녀 방치로 인한 문제

- 구로구의 경우 중국 출신(중국동포 및 한족 포함)의 중도입국자녀의 비중이 큰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중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중도입국자녀가 겪게 되는 학업이나 문화 적응의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
 -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부·모와 최초 결별하는 시기가 대부분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유아기 및 아동기이기에 부모와 낮은 애착관계를 형성함(윤명숙 외, 2012)
 - 또한 부모의 이별 및 재혼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방치될 위험이 존재(송민경·김진원, 2017)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치는 학업이나 문화 적응 문제와 함께 작용하여, 높은 학교 이탈률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 역시 높아지게 됨(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그림 1-8 참조)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재구성

[그림 1-기] 중도입국자녀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여부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복잡한 가족 구성, 체류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기에,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를 받게 될 경우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또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범죄가능성 역시 높고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방법과 법률 등을 가르쳐줄 기관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재사회화 과정이 생략되거나 부족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이와 함께 중도입국자녀들은 문화적 차이 및 재사회화 문제, 학교 밖 생활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 및 SNS와 관련한 사기나 도박 및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범죄예방이 필요
 - 실제로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와 함께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고양신문, 2020)

03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인식조사

- 1_연구개요
- 2_기초현황
- 3_자료분석
- 4_소결

03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인식조사

1_연구개요

1) 연구목적

- 본 장은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실태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돌봄 정책의 당사자의 실태에 대한 파악 및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 하는데 참고하기 위함
- 또한 내·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돌봄 기관 이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보완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경험 및 시설·환경 및 교육·활동 경험에 대한 품질 만족도 조사, 일상생활 및 학업성적, 다문화 경험 및 인식을 알아보았음

2) 자료수집

- 설문조사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중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방과후 돌봄 기관을 통해 배포
 -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응답한 내용에 관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명시하였음
 - 설문 문항은 2016년 방과후 센터 이용 아동 패널데이터의 설문 문항과 장미정(2012)의 석사 논문의 다문화 인식·경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모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

2_기초현황

- 설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초현황 파악을 실시
 - 기초 현황은 성별과 가족 경제수준, 이주 여부 등을 포함

1) 기초 분석

- 설문조사 시 무성의한 대답이나 승인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응답인원은 151명으로 남성 77명, 여성 74명이었음

[표 2-1] 설문조사 참여 인원

	응답인원(명)	비율(%)
합계	151	100.0
남성	77	51.0
여성	74	49.0

- 설문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중 내국인 자녀는 59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92명으로 각기 39.1%와 60.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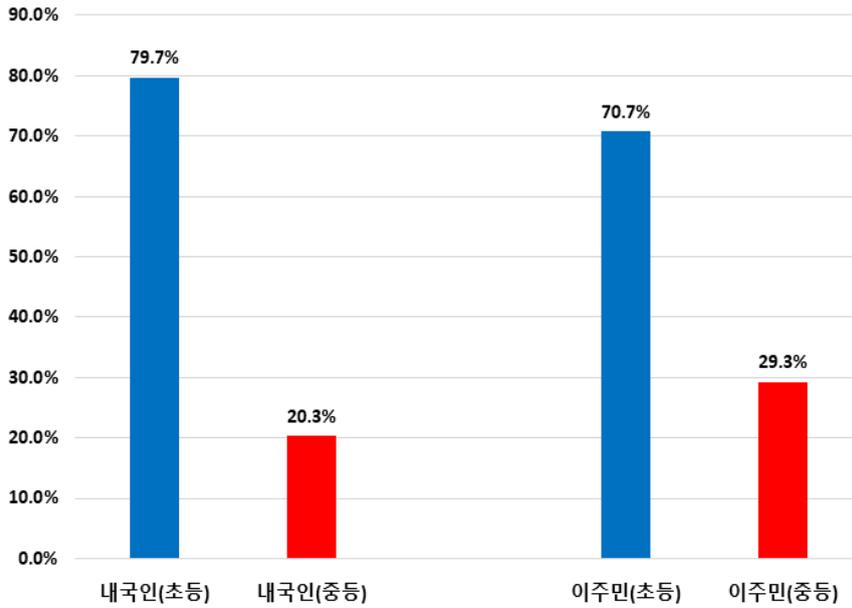
[표 2-2] 내국인·외국인주민 비율

	응답인원(명)	비율(%)
합계	151	100.0
내국인 가정	59	39.1
외국인 가정	92	60.9

- 평균 연령대는 내국인 자녀 11.9세, 외국인주민 자녀는 12.5세로 평균 12.3세로 나타났다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14세 이상, 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비중이 29.3%로 내국인 자녀 중 청소년 비중인 20.3% 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돌봄에 대한 외국인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표 2-3] 평균 연령

	응답인원(명)	평균 연령
합계	151	12.3
내국인 자녀	59	11.9
외국인 자녀	92	12.5



[그림 2-1] 돌봄 연령대 비중

- 설문에 참여한 아이들 가족의 경제적 수준 중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13.2%, 차상위계층은 18.5%, 사각지대 20.5%로 나타남 (표 2-4 참조)
 -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후 돌봄 기관의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표 2-4] 가족 경제 수준_1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151	100.0	
기초생활수급	20	13.2	13.3
차상위계층	28	18.5	18.7
사각지대	31	20.5	20.7
보통수준	53	35.1	35.3
약간잘산다	11	7.3	7.3
잘산다	2	1.3	1.3
매우잘산다	5	3.3	3.3
무응답	1	0.7	100.0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을 분류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차상위 계층 내국인이 8.5%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차상위 계층의 비율은 2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차상위계층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외국인주민 가정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됨

[표 2-5] 가족 경제 수준_2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기초생활수급	8	13.6	12	13.0
차상위계층	5	8.5	23	25.0
사각지대	12	20.3	19	20.7
보통수준	23	39.0	30	32.6
약간잘산다	4	6.8	7	7.6
잘산다	2	3.4	0	0.0
매우잘산다	5	8.5	0	0.0
무응답	0	0.0	1	1.1

- 부모님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살아계신다가 내국인 자녀의 경우 86.4%,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81.5%로 비슷한 수준이며, 어머니만 살아계신다가 내국인 자녀 10.2%, 외국인주민 자녀 13.0%로 아버지만 살아계신다의 비율 보다 높아 모자녀 가정 위주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임

[표 2-6] 부모님 생존 여부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모두 살아계신다	51	86.4	75	81.5
아버지만 살아계신다	2	3.4	4	4.3
어머니만 살아계신다	6	10.2	12	13.0
무응답	0	0	1	1.1

- 부모님의 직업 중 아버지 직업의 경우 내국인 자녀의 경우 사무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33.9%와 10.2% 44.1%를 차지하였으나,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사무직이 7.6%에 불과하며 전문직은 0명으로 조사되었음
 -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우 기타의 비율이 39.1%로 높은 편인데 이는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표 2-7] 아버지 직업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무직 및 주부	3	5.1	4	4.3
생산직	7	11.9	16	17.4
판매직	9	15.3	10	10.9
사무직	20	33.9	7	7.6
전문직	6	10.2	0	0
기타	6	10.2	36	39.1
무응답	8	13.6	19	20.7

- 부모님의 직업 중 어머니의 직업의 경우 특기할 점은 어머니가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내국인 자녀가 외국인주민 자녀보다 10%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 부모의 맞벌이 비중이 큰 편임
 -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과 같이 기타의 항목이 비중이 큰 편으로 이는 부모의 직업 안정성 등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표 2-8] 어머니 직업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무직 및 주부	14	23.7	12	13.0
생산직	1	1.7	6	6.5
판매직	10	16.9	26	28.3
사무직	17	28.8	6	6.5
전문직	2	3.4	0	0
기타	8	13.6	28	30.4
무응답	7	11.9	14	15.2

3_자료분석

-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한 기간 및 이용 시간과 품질과 만족도 및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1) 돌봄 기관 이용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평균 이용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평균 4.3 시간, 토요일에는 평균 3시간으로 나타남
 - 토요 돌봄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돌봄 욕구가 높은 편으로 야간 돌봄 이용은 외국인주민 자녀와 내국인 자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다만 토요 돌봄 이용 시간은 내국인 자녀보다 외국인주민 자녀가 2시간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내국인 학부모들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주말에도 늦은 시간까지 돌봄에서 배제되는 형태에 대한 경험이 묘사되었음

[표 2-9]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시간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일 이용시간	145	0	15	4.33	1.768
토요일 이용시간	146	0	48	3.07	4.789

[표 2-10] 토요일 평균 이용시간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58	0	10	1.74	2.757
외국인주민	88	0	48	3.94	5.594

- 돌봄 기관 이용 기간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상의 81.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년 이상의 경우도 7.5%를 차지함
- 산술적으로 6년 이상의 경우 중등돌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아동들이 초등학교 2~3학년 때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초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등돌봄의 비중은 실제보다 높은 편임

[표 2-11]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1

평균 이용 기간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151	100.0	
1년 미만	16	10.6	10.9
1년 이상 6년 미만	120	79.5	81.6
6년 이상	11	7.3	7.5
무응답	4	2.6	100.0

- 내국인 가정의 경우 1~3년차의 비중이 전체 69.5%를 차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저학년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시작을 하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2]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2

내국인 자녀 이용 기간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59	100.0	100.0
1년 미만	6	10.2	10.3
1년 이상	18	30.5	31.0
2년 이상	15	25.4	25.9
3년 이상	8	13.6	13.8
4년 이상	5	8.5	8.6
5년 이상	3	5.1	5.2
6년 이상	1	1.7	1.7
7년 이상	2	3.4	3.4
무응답	1	1.7	100.0

- [표 2-13]을 보면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우도 저학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4년차 이상의 비중도 23% 수준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방과후 돌봄 기관이 외국인주민 가정의 청소년 돌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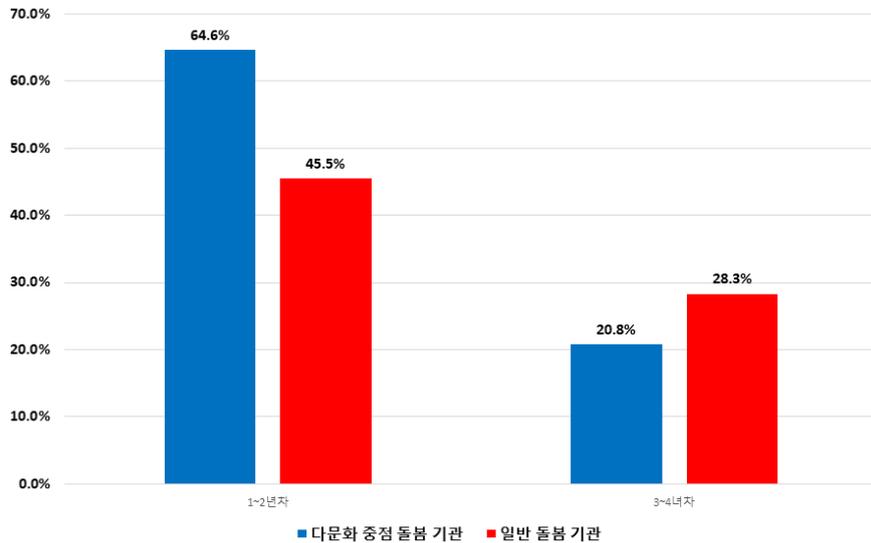
[표 2-13]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3

외국인주민 자녀 이용 기간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92	100.0	
1년 미만	10	10.9	11.2
1년 이상	29	31.5	32.6
2년 이상	14	15.2	15.7
3년 이상	14	15.2	15.7
4년 이상	11	12.0	12.4
5년 이상	3	3.3	3.4
6년 이상	2	2.2	2.2
7년 이상	2	2.2	2.2
8년 이상	3	3.3	3.4
10년 이상	1	1.1	1.1
무응답	3	3.3	100.0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3~4년차 정도의 비중이 일반 돌봄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이 새로 개설된 것과 함께 외국인주민들이 중도입국한 자녀가 해당 기관에서 적응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현상을 반영
 - 학부모 인터뷰에서도 위의 경험이 언급되었기에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징검다리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함

[표 2-14]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4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	중점기관(명)	비율(%)	일반기관(명)	비율(%)
합계	51	100.0	100	100.0
1년 미만	1	2.0	15	15.0
1년 이상	23	45.1	24	24.0
2년 이상	8	15.7	21	21.0
3년 이상	5	9.8	17	17.0
4년 이상	5	9.8	11	11.0
5년 이상	1	2.0	5	5.0
6년 이상	0	0.0	3	3.0
7년 이상	2	3.9	2	2.0
8년 이상	2	3.9	1	1.0
10년 이상	1	2.0	0	0.0
무응답	3	5.9	1	1.0



[그림 2-2] 기관별 이용 차이

- 내국인 가정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주민 가정이 2.5년, 내국인 가정이 2.2년으로 외국인주민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기간이 길었음

[표 2-15]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5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가정	58	0.00	7.00	2.1897	1.68019
외국인주민 가정	89	0.00	10.00	2.4494	2.10525

2) 돌봄 품질 만족도

- 돌봄 품질 만족도의 경우 선생님의 돌봄에 대한 만족과 함께 돌봄시설의 수준이나 환경적 품질 및 돌봄시설에서 실행하는 교육 및 활동에 대한 품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돌봄 품질 만족도의 경우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9.39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18.89으로 그 다음이었고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18.73으로 교육과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음

[표 2-16] 돌봄 품질 만족도_1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선생님	149	7.00	25.00	18.7383	4.12048
시설 및 환경	149	8.00	25.00	19.3960	4.39413
교육 및 활동	150	10.00	25.00	18.8067	3.85073

- [표 2-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품질 만족에 대한 차이를 보았을 때 시설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내국인 자녀가 18.30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자녀는 19.02로 나타나 외국인주민 자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것은 상대적으로 내국인 자녀에 비해 외국인주민의 자녀가 방과후 돌봄에서 선생님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되며, 선행연구에 나왔던 것처럼 방과후 돌봄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외국인주민 자녀의 적응에 있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처럼 선생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은 외국인주민 부모의 맞벌이 비중이 큼 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언어적 문제로 부모가 학업 등에서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보임

[표 2-17] 돌봄 품질 만족도_2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선생님	59	11.00	25.00	18.3051	3.73822
	시설 및 환경	59	9.00	21.00	19.4068	3.99188
	교육 및 활동	58	10.00	25.00	18.5172	3.52057
외국인 주민	선생님	90	7.00	25.00	19.0222	4.34981
	시설 및 환경	90	8.00	25.00	19.3889	4.66084
	교육 및 활동	92	10.00	25.00	18.9891	4.05320

-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과 일반 돌봄 기관을 비교하였을 때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일반 돌봄 기관의 선생님 만족도가 18.58인 것에 비해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은 19.06으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이는 위의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자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중도입국자녀가 주로 다니고 있는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선생님품질 만족도가 외국인주민 자녀의 평균 품질만족도보다 높은 편이기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의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문항은 총 12 문항 중 성적에 대한 1개 문항을 제외한 문항이 ‘학교생활’, ‘자신감’, ‘가족관계’, ‘친구관계’, ‘행동변화’, ‘성격변화’, ‘건강’, ‘문화생활’, ‘특기’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 중점 기관의 평균 점수가 19.19로 일반 기관의 평균 점수 18.60보다 높아 다문화 중점 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표 2-4]와 [표 2-5]에서 확인 할 수 있듯 내국인 가정에 비해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는 것과 연관됨
 - 즉, 가정에서 충족할 수 없는 활동들을 기관을 통해 지원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해석
-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일반 돌봄 기관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난 부분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평균 20.57, 일반 돌봄 기관의 경우 18.82 수준이었음

[표 2-18] 돌봄 품질 만족도_3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기관	선생님	49	11.00	25.00	19.0612	4.48798
	시설 및 환경	49	14.00	25.00	20.5714	3.86760
	교육 및 활동	51	11.00	25.00	19.1961	4.22384
일반 기관	선생님	100	7.00	25.00	18.5800	3.94195
	시설 및 환경	100	8.00	25.00	18.8200	4.53801
	교육 및 활동	99	10.00	25.00	18.6061	3.65004

- 돌봄 품질 만족도를 일반 돌봄 기관에 다니고 있는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로 분석할 경우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내국인 자녀는 19.40, 외국인주민 자녀는 18.11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차이가 존재
 - 세부적으로 시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으나 시설이 깨끗하거나 식사하는 곳이 청결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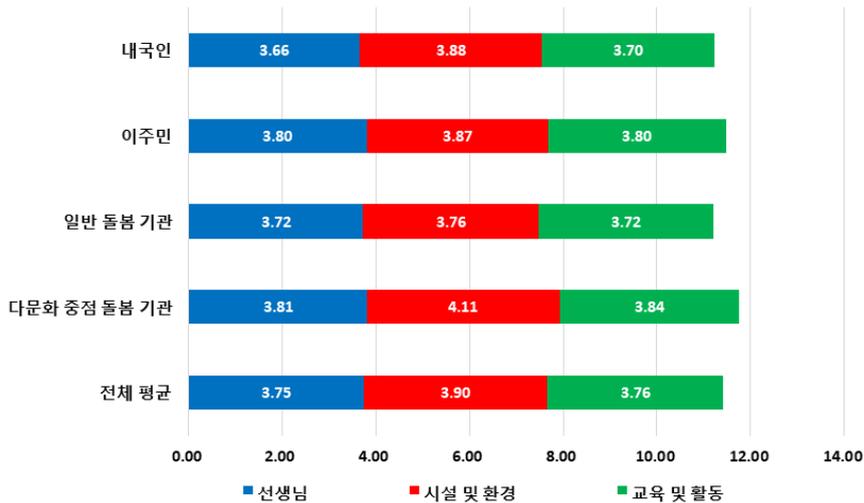
를 물어보는 항목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만족도가 내국인 자녀들의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차이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19] 돌봄 품질 만족도_4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기관 내국인	선생님	55	11.00	25.00	18.3636	3.67858
	시설 및 환경	55	9.00	25.00	19.4000	4.02584
	교육 및 활동	55	10.00	25.00	18.5741	3.62175
일반기관 외국인주민	선생님	45	7.00	25.00	18.8444	4.26910
	시설 및 환경	45	8.00	25.00	18.1111	5.05075
	교육 및 활동	45	10.00	25.00	18.6444	3.72434

- 돌봄 기관 이용에 대한 품질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그림 2-3]과 같음



[그림 2-3] 전반적 품질 만족도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이 중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3) 센터 이용 만족도

-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방과 후 센터 이용 지속과 전반적 만족, 친구에게 권유 등으로 나눌 수 있었음
 - 이용 지속의 경우 평균 4.04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로 높은 편이었으며 전반적 만족도 역시 4.02로 높은 편이었음
 - 다만 친구에게 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65로 ‘그렇다’와 ‘보통’ 사이 수준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20] 센터 이용 만족도_1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용 지속	150	1.00	5.00	4.0400	1.00255
전반적 만족	151	1.00	5.00	4.0199	0.95548
친구에게 권유	151	1.00	5.00	3.6490	1.09056

-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내국인 자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큰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음
 - 다만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중도입국자녀 비율이나 청소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에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추후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표 2-21] 센터 이용 만족도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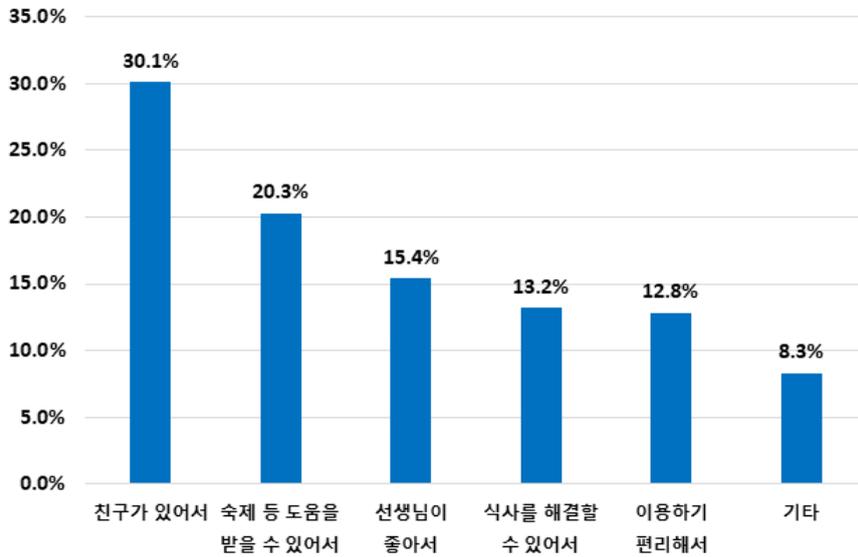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이용 지속	59	2.00	5.00	4.0678	0.96248
	전반적 만족	59	1.00	5.00	4.0508	0.91771
	친구에게 권유	59	1.00	5.00	3.6271	1.09699
외국인 주민	이용 지속	91	1.00	5.00	4.0220	1.03256
	전반적 만족	92	1.00	5.00	4.0000	0.98338
	친구에게 권유	92	1.00	5.00	3.6630	1.09220

- 센터 이용 만족도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 및 일반 돌봄 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표 2-22]를 보면 이용 지속과 전반적 만족의 경우 일반 돌봄 기관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친구에게 권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음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과 일반 돌봄 기관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용 지속과 전반적인 만족에 대한 권유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에 비해 일반 돌봄 기관의 이용 지속과 전반적인 만족에 대한 권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 지속에 대한 응답으로 다문화 기관은 평균 3.98, 일반기관은 평균 4.07이며, 전반적 만족에 대한 응답에 대해 다문화 기관은 평균 3.95, 일반기관은 4.06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연구 결과에서 도출 된 세부적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돌봄 기관의 경우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통합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표 2-22] 센터 이용 만족도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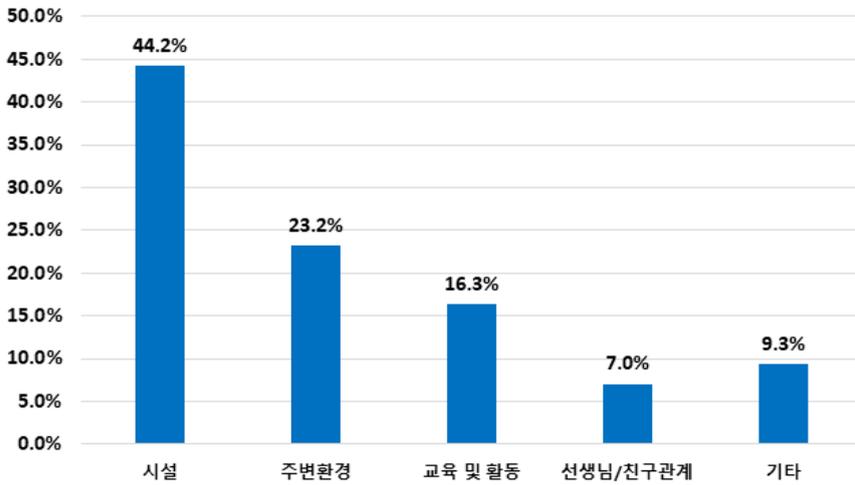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기관	이용 지속	51	2.00	5.00	3.9804	0.92715
	전반적 만족	51	3.00	5.00	3.9412	0.90359
	친구에게 권유	51	1.00	5.00	3.7647	1.03128
일반 기관	이용 지속	99	1.00	5.00	4.0707	1.04249
	전반적 만족	100	1.00	5.00	4.0600	0.98288
	친구에게 권유	100	1.00	5.00	3.5900	1.12002

- 방과 후 돌봄 기관 이용의 긍정적인 측면은 복수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친구관계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숙제 등 학업 도움에 대한 응답 역시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센터 15.4%로 센터 이용 만족에 중요한 조건이었으며, 식사와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후순위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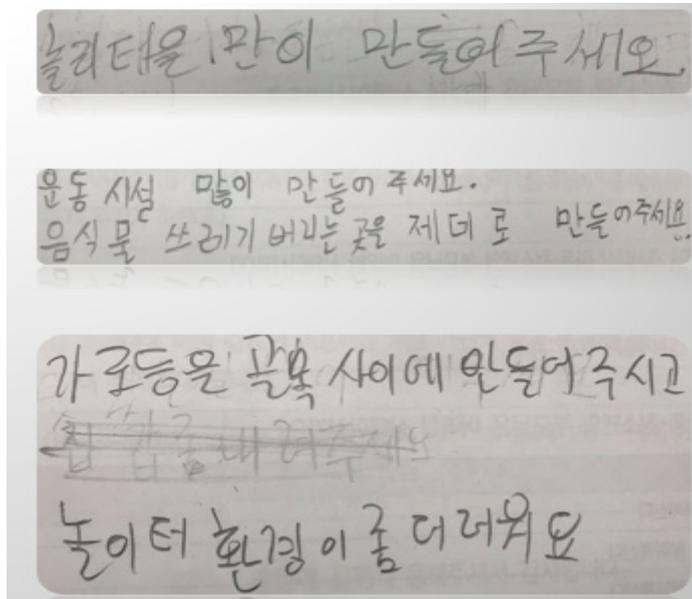
[그림 2-4] 센터 이용의 긍정적 측면

- 센터 이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로 내·외적 시설 개선이 44.2%로 가장 높음 (그림 2-5 참조)
-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높지만 시설에 대한 품질 항목이 주로 ‘공부하는 곳’, ‘화장실’, ‘식사하는 공간’ 등 내부 시설에 질문임을 고려 할 때 놀이공간이나 여가공간 등 아이들이 돌봄 기관에서 활동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연관됨
 - 즉,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욕구는 학습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 외에 놀이공간이나 여가공간에 대한 개선 욕구로 추측 할 수 있음
 - 위의 욕구는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공간이나 여가공간 등의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
-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역시 23.2%로 높았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주거지역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욕구로 해석됨
 - 한편으로 주변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시설에 대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기에 안전한 놀이 및 여가공간의 확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5] 센터 이용의 추가적 욕구_1

- 외국인주민 아이들의 욕구를 발췌한 결과 놀이터와 안전한 지역환경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이것은 지역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돌봄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그림 2-6] 센터 이용의 추가적 욕구_2

4) 친구관계 및 학업 성적

- 친구관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긍정 항목인 집중(긍정1), 이해(긍정2), 믿음(긍정3) 중 믿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
 - 부정 항목의 경우 불만(부정1), 외로움(부정2), 무시(부정3) 중 무시가 3.45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긍정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표 2-23] 친구관계 만족도_전체

친구관계 전체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150	2.00	5.00	4.0000	0.70473
친구관계2_긍정2	150	2.00	5.00	4.0333	0.76340
친구관계3_긍정3	149	2.00	5.00	4.2282	0.72709
친구관계4_부정1	150	2.00	5.00	3.2400	1.01453
친구관계5_부정2	149	2.00	5.00	2.8591	1.00687
친구관계6_부정3	149	2.00	5.00	3.4966	0.95595

- 친구관계 중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에 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긍정1 문항인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와 긍정2 문항인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자녀가 긍정1 문항 평균 3.98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자녀는 4.01로 나타났음
 - 내국인 자녀의 긍정2 문항의 평균이 3.96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자녀는 4.07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2-24, 2-25 참조)
- 반면, 친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1 문항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에 대한 응답은 내국인 자녀 3.00, 외국인주민 자녀 3.39로 나타남
 - 부정2 문항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에 대한 응답은 내국인 자녀 2.64, 외국인주민 자녀 2.96로 나타났음
 - 부정 3문항인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에 대한 응답은 내국인 자녀 3.37, 외국인주민 자녀 3.57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긍정적 문항의 점수가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서 높게 나온 것은 내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들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인식의 효과라고 판단됨
- 동시에 또래관계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신체적 혹은 사회·문화적 차이나, 심리적 문제 등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께 공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24] 친구관계 만족도_내국인

내국인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59	2.00	5.00	3.9831	0.70690
친구관계2_긍정2	59	2.00	5.00	3.9661	0.78710
친구관계3_긍정3	59	2.00	5.00	4.2542	0.77889
친구관계4_부정1	59	2.00	5.00	3.0000	0.98261
친구관계5_부정2	59	2.00	5.00	2.6949	0.85610
친구관계6_부정3	59	2.00	5.00	3.3729	0.96308

[표 2-25] 친구관계 만족도_외국인주민

외국인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91	2.00	5.00	4.0110	0.70702
친구관계2_긍정2	91	2.00	5.00	4.0769	0.74879
친구관계3_긍정3	90	2.00	5.00	4.2111	0.69500
친구관계4_부정1	91	2.00	5.00	3.3956	1.00972
친구관계5_부정2	90	2.00	5.00	2.9667	1.08566
친구관계6_부정3	90	2.00	5.00	3.5778	0.94783

- 기관별로 분석하였을 때,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일반 돌봄 기관보다 긍정적 문항에 대한 대답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는데,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중도입국자녀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도입국자녀들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의미로 이들이 상호 간에 의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표 2-26, 2-27 참조)
- 부정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부정 1문항 3.58, 부정 2문항 3.20, 부정 3문항 3.60인 반면 일반 돌봄 기관은 부정 1문항 3.07, 부정 2문항 2.69, 부정 3문항 3.44로 나타남

- 연구 결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친구관계 부정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부정 문항의 경우 ‘나는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자신들과 같은 외국인주민 뿐만 아니라 내국인 친구와의 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부정 2문항은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일반 돌봄 기관의 아동들보다 그렇다는 점수가 높기에 기존 관계의 끈끈함과 별개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중도입국자녀들의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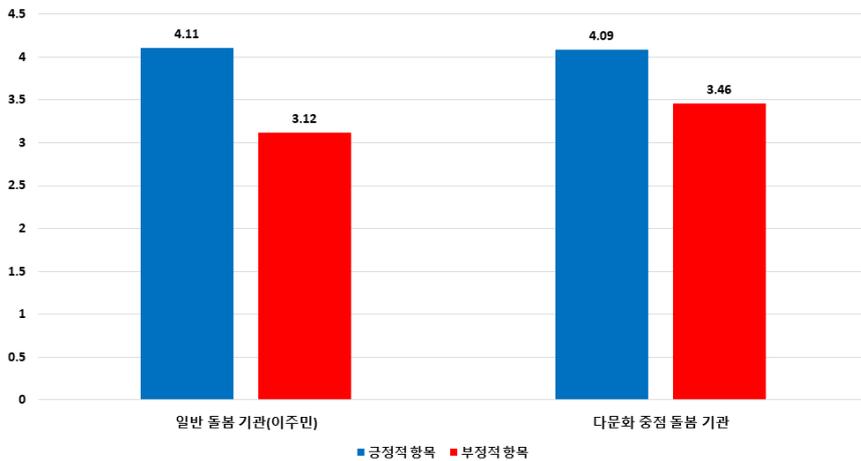
[표 2-26] 친구관계 만족도_다문화 기관

다문화 중점 기관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50	2.00	5.00	4.1000	0.67763
친구관계2_긍정2	50	2.00	5.00	4.0400	0.72731
친구관계3_긍정3	50	3.00	5.00	4.1200	0.59385
친구관계4_부정1	50	2.00	5.00	3.5800	0.97080
친구관계5_부정2	49	2.00	5.00	3.2041	1.02020
친구관계6_부정3	50	2.00	5.00	3.6000	0.88063

[표 2-27] 친구관계 만족도_일반 기관

일반 기관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100	2.00	5.00	3.9500	0.71598
친구관계2_긍정2	100	2.00	5.00	4.0300	0.78438
친구관계3_긍정3	99	2.00	5.00	4.2828	0.78299
친구관계4_부정1	100	2.00	5.00	3.0700	0.99752
친구관계5_부정2	100	2.00	5.00	2.6900	0.96080
친구관계6_부정3	99	2.00	5.00	3.4444	0.99203

- 친구관계의 만족도 차이를 각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긍정적 문항의 경우 일반 돌봄 기관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문항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점수가 더 높았음
 - 이것은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내국인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나타냄
 -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일반 돌봄 기관이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일반 돌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그림 2-7] 친구관계 만족도_외국인주민 자녀 비교

-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자녀의 만족도가 외국인주민 자녀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기관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돌봄 기관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2.84,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2.80로 나타났기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2-28] 학업 성적 만족도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업 성적 만족도 (전체)	147	1.00	4.00	2.8707	0.81318
학업 성적 만족도 (내국인)	56	1.00	4.00	2.9464	0.84034
학업 성적 만족도(외국인주민)	91	1.00	4.00	2.8242	0.79713
학업 성적 만족도 (일반 기관 이용 외국인주민)	44	1.00	4.00	2.8409	0.83369
학업 성적 만족도(다문화 중점 기관)	51	1.00	4.00	2.8039	0.74886

5) 상호 인식과 경험³⁾

- 상호 인식과 경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자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내국인 자녀들의 경우 외국인주민 아이들에 대한 경험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경우 내국인 아이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음

[표 2-29] 상호 인식과 경험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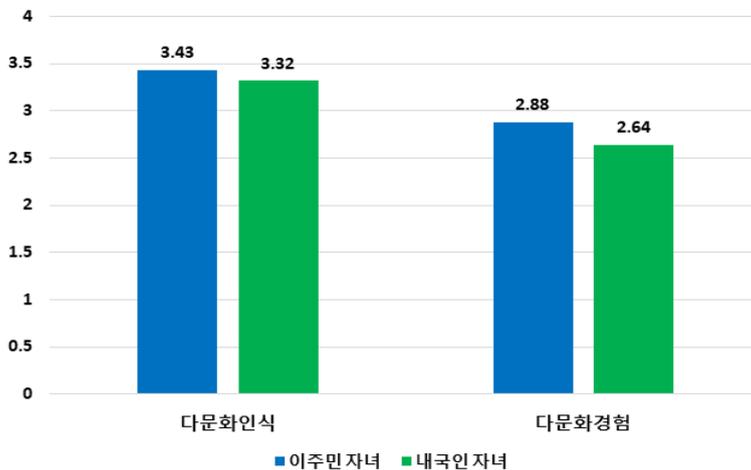
내국인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 중 외국인 친구 여부	55	1.00	4.00	2.7273	1.12964
외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	54	1.00	4.00	2.5556	1.16013
친구 피부 색 달라도 상관 없음	54	1.00	4.00	3.3333	0.91115
외국인 친구를 타인에게 소개 가능	55	1.00	4.00	3.2727	0.80403
피부색이나 생김새 달라도 친구 가능	55	2.00	4.00	3.6727	0.51116

[표 2-30] 상호 인식과 경험_2

외국인주민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 중 내국인 친구 여부	91	1.00	4.00	2.9560	1.02102
내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	91	1.00	4.00	2.8132	1.07406
친구 피부 색 달라도 상관 없음	90	1.00	4.00	3.2667	0.87152
내국인 친구를 타인에게 소개 가능	89	1.00	4.00	3.2022	0.84180
피부색이나 생김새 달라도 친구 가능	90	1.00	4.00	3.4667	0.73744

3) 다문화 인식·경험 보완 수정

- 상호 인식과 경험에 대한 평균 점수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그림 2-8 참조) 항목별로 미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음 (표 2-29, 2-30 참조)
 - 앞서 [표 2-12]와 [표 2-13]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평균 3년 이상 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인식과 경험에 대한 평균 점수는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내국인(평균 3.67)과 외국인주민(평균 3.46) 모두 문항 3 '외국인 친구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없음'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내국인 자녀의 경우 '외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이 평균 2.55, 외국인주민 청소년의 경우 '내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이 평균 2.81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주민 아동이 통합하여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의 결과는 실제로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내국인 자녀들이 일상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해 '다문화'나 '외국인주민'이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더라도 자신들이 배운 '다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질적조사의 필요성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기존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과 일상의 괴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로구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으로 나타남



[그림 2-8] 상호 인식과 경험_3

4_소결

- 본 설문조사는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로 구로구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방과후 돌봄 기관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상이었음
 -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최종적으로 151명으로 남성 77명, 여성 74명이었으며 내국인 자녀가 59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92명으로 나타났음
-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의 경우 평일 돌봄보다 토요 돌봄 이용시간이 차이를 보였는데, 외국인주민 자녀가 평균 3.94 시간을 이용하는 반면, 내국인 자녀는 1.74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돌봄 품질 만족도에서 주목할 것은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차이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내국인 자녀보다 높은 편이었음
 - 선생님에 대한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높은 만족도는 외국인주민 가정이 상대적으로 자녀의 돌봄에 있어 방과후 돌봄 기관에 의존함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해석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이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중도입국자녀들이 주로 포함된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것과 연결 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충족할 수 없는 활동들을 돌봄 기관을 통해 지원 받아 충족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로, 놀이공간이나 여가 공간 등 아이들이 활동을 위한 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통한 자원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친구관계의 경우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긍정적 점수와 부정적 점수가 동시에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위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중도입국자녀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일반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아동 청소년의 긍정적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내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인식의 결과라고 보임

- 다문화 인식 및 경험을 포함한 상호 인식 및 경험의 경우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 모두 인식에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두 케이스 모두 '내국인(또는 외국인주민)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에 대한 점수가 낮아 내국인 주민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가 통합하여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아동들의 경우 다문화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기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다문화 인식과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설문조사는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및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결과의 해석 측면에서 설문조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추후 질적 접근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04

돌봄 기관 실무자 및 학부모 질적조사

1_연구개요

2_돌봄 기관 실무자

3_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4_소결

04 돌봄 기관 실무자 및 학부모 질적조사

1_연구개요

1) 연구 내용 및 연구 질문

-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 기관 실무자들 및 학부모들에 대한 FGI와 개별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 방과후 다문화 돌봄의 현황과 특성 및 어려움을 확인하고 구로구 다문화 돌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함
- 2020년 현재 구로구의 외국인 주민 증가는 단순히 일자리를 위한 이주가 아닌 가족을 포함한 일상의 정주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초등 및 중등과정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필연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
- 실제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교실’,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 및 중도입국자녀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방과 후 돌봄 기관은 일상 속에서 외국인주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응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현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책 역시 필요
 -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을 진행
 -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다문화 돌봄의 현황 및 어려움은 다문화 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집단심층면접은 1회 진행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한편으로 지역의 내·외국인주민들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실제 당사자이기에 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이를 위해 구로구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방과후 돌봄 기관에 보내고 있는 내·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 참여자 선정은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각 1회씩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본 질적조사의 연구질문은 “구로구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현안은 무엇인가?”와 “돌봄 당사자들의 욕구는 무엇인가”임

2)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과 자료수집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지역내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 및 지역에서 생활하는 내·외국인 주민으로 총 13명이 조사에 참여
 - 세부적으로 돌봄 기관 실무자는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은 5명, 내국인 주민은 2명이 참여
 - 조사는 참여자의 상황 및 분석 결과에 따라 FGI 및 개별 인터뷰 1회를 포함하여 각기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
 - 기관 실무자들은 협조 요청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외국인 주민은 기관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녹취한 뒤 이를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해당 인터뷰가 녹취 됨을 미리 언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
 -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강요되지 않으며 원치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응답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설명
 -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 및 비밀이 보장됨을 명시하였음
 - 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대상자 동의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각기 서명한 뒤 복사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발송하였음

(2) 연구 수행 및 분석방법

-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음
 - 특정한 인식론적·존재론적 입장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방법이 아닌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해당 연구가 가진 특성에 기인함
- 일차적으로 이번 연구는 방과후 돌봄 현장에서의 외국인주민 자녀 증가에 따른 경험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보다 질적 연구의 공통된 인식 토대 아래 경험의 의미와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경험의 맥락을 들여다 보고 해석하는 작업으로, 이것은 곧 탐색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음
 - 일반적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라는 질적 연구의 공통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함(김인숙, 2016)
 - 이것은 연구자가 특정한 인식론이나 존재론에 구애받지 않고 관심사와 선택에 따라 연구문제에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함
- 본 연구는 귀납적 주제분석을 활용하였음
 - 귀납적 주제분석은 질적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석방법이며 동시에 일반적 질적 연구를 선택한 연구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김인숙, 2016)
 - 귀납적 주제분석의 일환으로 포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는 포괄분석을 통해 자료의 개략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정리하였음
 - 파악된 주제를 바탕으로 의미단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패턴분석을 거쳐 범주를 정리함
- 귀납적 주제분석의 전 과정에서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를 실시하였음
 -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는 질적 자료분석에서 자료에 대한 개념적 민감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기법(김인숙, 2016: 318)
 - 비교하기와 질문하기에 중점을 둔 것은 연구자가 기존의 선이해를 방지하고자 함이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범주와 속성들을 구성하고 탐구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분석의 과정에서 각각의 사례마다 주제를 도출
 - 이것은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는 것과 함께 공통의 경험에서 나오는 의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

2_돌봄 기관 실무자

- 돌봄 기관 실무자는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구로구에서 방과후 돌봄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였음
 - 간담회는 1회 진행이 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1회씩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개략적인 인적사항은 [표 3-1]과 같음

[표 3-1] 연구 참여자 현황_1

명단	소속	성별	비고
참여자1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2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3	우리동네키움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4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5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6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 간담회와 개별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큰 틀에서 ‘다문화 돌봄의 실태’와 ‘돌봄환경 변화 적응 및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다문화 돌봄의 실태에서는 일차적으로 중도입국자녀의 적응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나타났음
 - 그에 반하여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영유아 시절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기존 내국인 아이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돌봄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것은 외국인주민 부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중도입국이나 초기입국에 상관없이 방과후 돌봄 기관에 의존하는 원인이기도 함
- 돌봄 환경의 변화와 과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개설과 같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 따른 적응과 고민을 들 수 있었음
 -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은 곧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돌봄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함

- 동시에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종사자의 필요성에 대한 현안이 나왔으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 강화 및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등 돌봄 전반에서 적극적 행위자로서 구청의 역할이 요구되었음

[표 3-2] 분석 결과_1

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다문화 돌봄의 실태	■ 중도입국자녀 적응 문제	• 적응 과정의 시스템 마련 필요
	■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	• 문화적 차이와 저소득 문제의 결합
	■ 외국인주민 부모의 의존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 심화
돌봄 환경의 변화와 과제	■ 돌봄 기관의 역할 증대	• 공적 돌봄 체계 구축과 과제
	■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의 필요	• 중도입국자녀 등의 증가에 따른 허브 역할 필요
	■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 강화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구청 역할 강화 요구
	■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포괄하는 돌봄 체계 구축

1) 다문화 돌봄의 실태

- 실무자 간담회 및 인터뷰에서 주로 이야기된 다문화 돌봄의 실태는 중도입국자녀 적응의 문제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방치 및 이에서 파생된 부모의 의존으로 정리되었음

(1) 중도입국자녀 적응 문제

- 중도입국자녀의 적응은 외국인주민의 돌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구로구에서 생활하는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 자녀들이 주가 되나 예외적으로 탈북한 부모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태어난 자녀들도 존재하며, 이러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에 가깝게 여기고 있어 중국동포나 한족 출신 자녀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됨
- 중도입국자녀들이 일차적으로 문제를 겪는 것은 의사소통으로, 이것이 내국인 아이들과의 관계 맺음에 어려움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의 문제는 곧 공통의 관심사로 이어지지 않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언어가 담긴 문화적 배경을 생각할 때 언어의 벽은 곧 문화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기에, 내국인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어려워짐

언어에서 의사소통에서 많이 서툴고 이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좀 거리감이 또래간에 생기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자3)

학교에서 얘기를 조금 하겠죠. 근데 대화거리가 없으니까. 공통관심사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얘기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5)

- 아이들 사이에서 생긴 거리감은 곧 소수자인 중도입국자녀의 소외로 이어지는데, 중도입국자녀들은 내국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면서 위축되며, 심각할 경우 스스로에게 낙인을 주는 경우까지 생김

선생님 하고 있을 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들만 있으면 너무 말도 재미있게 잘 하는데 스스로 이게 소외되고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아이들 다같이 술래잡기나 무궁화 피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혼자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참여자3)

자기는 중국에서 와서 친구들이 자기를 덜 좋아하는 거 같다고. 스스로 낙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여자3)

- 관계에서의 소외는 다름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나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따돌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중도입국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어려움이 따돌림에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도 중학생 중 한 애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따 돼서 당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학교에서 기숙사가 가깝거든요. (참여자5)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애네들이 가해자로만 되는 거예요. 애네가 피해자인데. 한국 애들이 말을 워낙 잘 하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니까 애네들은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참여자4)

- 소외와 따돌림이 심해질 경우 중도입국자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권인 자신들끼리 서로 더욱 뭉치는 경향을 보임
 - 아이들을 섬이라고 표현하는 참여자의 말처럼 기존 내국인 자녀들과 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게 됨
 - 중도입국자녀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섬이라고 표현되는 특성 상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고립될 우려가 있음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중국어. 못 알아 들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불평하고. (참여자1)

지금 이 아이들은 따로 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 세계를 형성을 했어요. (참여자5)

- 중도입국자녀들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자신이 배웠던 것과 다른 교육 방식과 겹쳐지면서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함
 - 이로 인해 중도입국자녀들은 학업에서 소외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교육 등에서 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또 개네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애네 한 아이는 중국에서 1,2등 하던 애예요. 평균 98점 이런 애인데 여기 와서 밑바닥을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애도 속상하겠죠. (참여자4)

이번에도 아이들을 온라인교육을 센터에서 시키면서 보니까 거의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헤드셋을 끼고 처음엔 끼고라도 있었어요. 근데 목에다 걸치고 그 시간엔 멍하니 앉아있거나 자거나 아니면 장난 치는 거죠. (참여자5)

- 언어적 문제와 소외, 따돌림 및 학업 부진으로 인해 중도입국자녀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함
 -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도 덜하며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중국인으로도 완벽하지 않음

아이가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근데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낮다. 그럼 나는 가르칠 수 없다. 애네들이 근데 계속 한 대요. 근데 매너도 좋고 다 잘 하는데 그런 어떤 중국에 관한 중국의 자부심.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한국어를 뭐 하러 배우냐? 나는 커서 다시 중국으로 갈 것이다. (참여자4)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중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참여자5)

- 중도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돌봄의 문제나 부모와의 갈등, 학업 문제가 아동기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보다 심각해짐
 - 이것은 사춘기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도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

그것처럼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개네들만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무조건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사춘기예다가 자기의 어떤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어떤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참여자2)

- 중도입국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
 - 추가적으로 중도입국자녀의 돌봄을 맡고 있는 다문화 전문 돌봄 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저희가 중국어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도 입국한 친구가 제일 잘 하니깐 너무 자신감 있게 하더라고요. 좀 그런 친구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줘서 자존감을 좀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참여자3)

우리 센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소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얌전하고 이 친구는 걱정할 게 없다고 하지만 저희 센터 와서는 다 외국인예다 중국인예다가 그걸 아는 동시에 애가 바뀌는 거예요. (참여자2)

(2)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

- 중도입국자녀들과 달리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음
 - 일반적인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성장하였기에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한국문화에 익숙하기에 내국인 자녀들과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음

그냥 나는 중국의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특별히 문제되진 않는데. (참여자1)

개네 둘 말고 나머지 애들은 초등학생이라 애네가 한국 앤지 나도 모를 경우가. 그걸 봐야지 알지. 말을 너무 잘 하니까 의사소통 이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어요. (참여자4)

-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적응보다 일상에서의 방치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직업이나 경제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근데 학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의존도가 높은 것은 뭐냐면 생활규범이 잘 안 잡혀 있어요. (참여자1)

사실은 다문화 애들 집에 가봤자 혼자 있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계속 늦게까지. (참여자4)

-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방치는 주로 학업과 식사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학업의 경우 부모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며, 부모가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이 부족한 라면으로 때우는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이것은 구로구 외국인주민 가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나 한족 출신 중국인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때문으로 부부 모두가 중국계 출신으로 소위 3D 업종 종사하며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거주환경이 좋지 않기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보임

제가 직접 가르쳐 보면 뭐를 느끼냐면 애네가 전 단계에서 특히 수학이나 이런 거 개념 이해가 안 돼서 아예 승승승 빠져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채워줘야 하는데 애네 들은 진도만 나가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여자1)

집에 들어와서 다시 나오기가 귀찮으니까 사발면을 하나 저녁을 먹을 걸.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한 7,8시쯤에 사발면을 하나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꼬륵꼬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근데 집에는 조리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참여자4)

- 중도입국한 청소년에서 문제가 되듯 외국인주민 자녀 역시 청소년의 돌봄이 중요한데 이것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부모나 돌봄 기관 실무자들을 따르는 초등학생과 달리 청소년의 돌봄은 청소년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사실 정부의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키움은 초등만 돌보는 체제잖아요. 그럼 이 청소년들은 정말 아무데서도 돌볼 때가. (참여자6)

얼마 전에도 구로에서 중학교 1,2학년 애들이 자동차 렌터카 훔쳐서 대전 내려가서 사고 났잖아요. 이제 그 중에 여기 보면 저희 센터에 다녔다가 탈락한 아이가 있어요. (참여자6)

-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방치는 단순히 외국인주민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업 문제나 식사 해결 등은 저소득층이 겪는 복지 문제에 외국인주민의 특성이 가미된 결과임
 - 특히 외국인주민의 특성 상 사회적 관계가 협소하기에 자녀들의 방치가 사회적인 배제로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내가 옛날에 공부방 처음 시작할 때 빈곤가정의 아이들 돌봤는데 이 다문화가정이 많이 빈곤가정이신 거죠. (참여자1)

(3) 외국인주민 부모의 의존

-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학습부터 시작하여,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갈등까지 폭 넓게 나타남

저희 센터로 오는 이유는 숙제를 안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돌봄교실은. 저희는 숙제를 다 봐주고 온라인 학습이나 학습지도 하고 숙제까지 노트 정리까지 다 해주니까 (참여자3)

아이들은 놀고 싶고 유혹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많으면 그런 걸 우리 보고 처리해달라. 선생님이 중간에 나서서 짚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참여자1)

- 학업의 측면에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은 더욱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구열과 함께 그들이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아이들의 학업을 돌봐 줄 수 없다는 상황이 겹쳐 발생하는 현상임

책을 읽어도 지금 4학년 된 친구도 책을 제대로 못 읽어요. 쓰면 받침 다 틀려요. 맞춤법이 거의 안 맞는다고 보면 되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문화 부모님들. (참여자6)

저희가 어머님들 저희 키움센터에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존하는 성향을 보면 거의 100% 의존을 하시죠. (참여자3)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외국인주민 부모의 의존은 부정적이고 무책임함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 돌봄에 있어 장점이자 과제로 볼 수 있음

제가 보긴 이 동포. 다문화 중국에서 오신 이런 학부모들이 학원 같은 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원에

가서 제대로 못 배우거든요. (참여자6)

이제 한국가정 하고 외국가정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의존도는 똑같거든요. 근데 중국이 과락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80점이에요. 엄마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참여자3)

- 한편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온라인 학습 등 전반적인 교육까지 포함되는 현상

우리는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애네들이 한국말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다 없잖아요. 출석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외국인노동자니 소통이 안 되니까 센터로 다. 선생님한테 다 전화 와요. (참여자2)

온라인교육은 사실은 분명히 엄마들은 의존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00% 센터에 맡길 건 뻔했어요. (참여자4)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은, 방과후 돌봄 기관이 단순히 돌봄 제공의 역할을 넘어 아이들과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구로구에 정착하는데 있어 일종의 자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돌봄이라기보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가 일종의 사회통합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기관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참여자1)

2) 돌봄 환경의 변화와 과제

- 돌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제 역시 간담회 및 인터뷰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는데,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할 증대는 돌봄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곧 구청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연결됨

(1) 돌봄 기관의 과제 증대

-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구로구의 돌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초적인 변화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제외한 방과후 돌봄 기관들은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른 변화의 추동 및 갈등을 겪고 있음
- 참여자들의 말대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방과후 돌봄 기관은 환경변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다문화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체계의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실제 돌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

다문화센터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환경변화에 의해서 다문화센터가 되어 가는.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지원체제도 없이 아무런 준비사항도 없이 우리는 다문화 돌봄을 하고 있는 거죠. (참여자1)

XX 센터장님이 다문화 아이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희랑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약간 충돌이 있어요. (참여자6)

-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기나 아이템 구매 및 게임 중독은 주요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주요한 현안으로 인식됨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서 초등이랑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게임 아이디어를 공유를 한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거기다 카드를 바로 아이템 살 수 있도록 그냥 클릭클릭만 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480만원이 됐어요. 근데 애가 그걸 결제한 걸 애는 알고 있어. (참여자2)

우리는 태블릿피씨를 받았잖아요. 보라고 하니깐 틀어놓고 태블릿피씨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5)

다문화 친구인데 이 아이도 성적인 데 관심이 많아서 애들한테 막 보내고. 저희가 그런 예방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사실 받는다고 저기 되진 않는 거 같아요.

사이버는 저희도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있으면서 이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올해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자6)

-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중독지원센터 등을 통해 약물 중독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좀 더 실용적인 스마트폰 중독 및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성폭력 교육을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놀이 형태로 개발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범죄 교육 등에서 활용하여 개발 뒤 확대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 볼 수 있음

저희도 그냥 인터넷이나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핸드폰 못 하게 하거든요. 하루에 30분 이상 갖고 온 친구만 하게 하고. (참여자3)

안 받은 게 아니라 매번 받는데. 그래서 그나마 저희 센터 아이들은 성폭력예방 교육도 받고 성인지 교육도 받고 해요. 많이 그런 부분은 그래도. (참여자6)

- 코로나 19 상황 이후 학습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이 과부화 되는 현상 역시 발생하여, 기관에 따라 이를 기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함

저학년 아이들은 10시에 와요. 10시에 와서 다같이 온라인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들도 집에 안 계시고 자기가 아이디나 이런 걸 치고 들어가기가 힘들니까 (참여자1)

저희가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서 한 곳에서는 계속 빔 프로젝트를 틀어놓고 그 방송을 계속 틀고 한 강의실에서는 1학년 수업하면 2학년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강의지도 하는 거 하고 두 분이서 숙제지도.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참여자3)

(2)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의 필요

-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의 필요는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요구 중 하나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종사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건 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배제나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거나 이러면 그럴 때는 허브기능의 역할이 필요하고. (참여자1)

중도 입국한 애들은 문화도 몰라 그런데 언어도 몰라. 다 몰라. 그럼 그 속에서 너 여기서 같이 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고 이 친구는 사회에서 한국 애들 가정에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타워 아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참여자2)

- 다문화 돌봄 허브에 대한 요구에 앞서 허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문화 돌봄 허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

아무리 중앙에 허브기관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돌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허브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래서 저는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허브기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선 고민이. (참여자1)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이런 지역에 몇몇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참여자6)

- 구로구의 경우 융합형 키움센터 설립 등 공적 돌봄이 확대되면서 마을돌봄조정관이 이 돌봄을 증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단순히 조정관이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음

- 조정관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수요 조절과 연계가 주요 역할이며 다문화 조정의 역할은 아니기에 지역의 유능한 종사자들을 다문화 수요가 높은 기관에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
 - 다만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이 돌봄 수요에 대한 조정이라고 본다면 외국인주민의 돌봄 수요 역시 이에 해당하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것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함

그래서 오히려 그걸 센터형으로 둘 건지, 종사자형으로 둘 건지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능한 종사자들을 그 아이가 필요한 데로 파견을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필요한 돌봄의 방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있는 돌봄이라든가 종사자들이 그런 컨설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참여자1)

그래서 저희가 책임자다 이라고 보내드린 건데 이 분이 다문화까지 아우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이 분이 역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될 거 같고요. 왜냐면 조정관이 여기에서 하는 조정관의 역할은 사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의 조정의 역할인 거지. 다문화의 조정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참여자6)

- 한편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 센터장이 허브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
 -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보임

왜냐면 다문화가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중에 몇 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전 좋을 거 같아요. 딱 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계속 새로운 센터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게 활용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참여자6)

- 중요한 것은 허브 기능의 구축이 단순히 기관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더욱 증시됨

그래서 허브라든지 그림 체계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비스 제공자들간에 합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전혀 제공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보고 아이 1명 뺏길까 봐.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1)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서로 경쟁구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예요. (참여자2)

그리고 이게 수직구조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 순위에서 내가 못 올라가고 내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생태계가 더 좋아질 거니까 협력해야겠다 말하자면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기가 쉬운 거죠. (참여자1)

(3)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 실무자 간담회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나타난 것 중 하나는 행정과 지역내 방과후 돌봄 기관의 협조, 즉 협력체계의 강화였음
-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이나 중도입국자녀 문제 등 구로구의 다문화 돌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돌봄 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니 저거 부구청장님이 협의회 회장이면 뭐해.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는 협의회. 그 중요사안에 대해서 전혀 협의도 없고. 정보공유도 안 되고. (참여자1)

XX구 같은 경우엔 교육복지 회의 안에 동사무소에 주무관님들 뭐 몇 동 몇 동 2분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에 교감선생님 아니면 교육부장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센터. 근데 그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참여자2)

- 행정과 민간 사이의 제대로 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지 못하는, 즉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됨

이번에 융합형 키움센터도 엉뚱한 데 만들어놓으셔서 애들이 없어요. 4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올 수 없는 장소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 만들어야지 (참여자6)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들끼리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점점 유명무실해졌어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여자6)

- 행정과 민간의 협조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탕 될 때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 될 수 있음
-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은 외국인주민의 돌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활용해서 이렇게 돌봄서비스가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서 설계가 돼 있으면 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럴 땐 여기 가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관에 A라고 하는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은 심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참여자1)

지역사회에서 같이 돌봄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다문화 아니면 아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적인 부분.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2)

(4)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은 다문화를 포함한 구로형 돌봄 체계 구축과 연결하여 고민할 수 있으며,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 시스템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기반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복지를 늘릴 경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처럼 내국인 주민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큰 틀에서 다룰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근데 다문화사업이라고 별도로 하는 사업은 전 반대예요. 그것도 그것조차도 우리 아이들 하고 함께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너 다문화지? 너희 둘만 이렇게 와서 해 이렇게 하는 건. (참여자4)

전 다문화만 이렇게 잘라놓고 돌봄을 하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온 아이들은 여기 주민으로 살아갈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결국은. (참여자6)

근데 그게 필요하긴 해요. 내국인하고 외국인 중도 입국자 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외국인들을 받을 때 선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해요. 다 받는 게 아니라. (참여자2)

- 일차적으로 구로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돌봄을 포함하여 동일한 비전과 목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이것은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밑받침 되어야 함

지금 구로형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첫 번째로 구로형 종사자들이 동일한 비전이나 목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서비스 제공자들을 먼저 잘 묶는 형태가 필요하다. 그 중심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참여자1)

-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철학은, 돌봄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질적인 부분의 향상이 필요함으로 나타남

구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키움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양적인 것만으로. (참여자3)

교사 뭐 특히나 회계 부분에 있어서 워낙 저희가 무료가 아니고 무료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회계 되게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쭙봐도 가이드가 없어요. (참여자3)

- 동시에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구로구의 기존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과도 연결됨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우수하고 질적으로 되게 우수하고 그리고 종사자들도 되게 안정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참여자4)

초창기 시작 된 곳은 20년. 저희 센터도 지금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다 10년 이상이 된 곳이고. 그만큼의 아이들에 대한 게 축척 돼 있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걸 활용하셔야 하는 게 맞지. 무조건 돌봄 처음 해보는 분들 교사들 뽑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걸 아닌 거 같아요. (참여자6)

- 마지막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은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주민 청소년의 돌봄 문제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제안한 적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그럼 다. 누리키움센터로 바꿔라. 그래서 모든 아동을 다 돌보는 걸로 하자 한 거죠. 근데 저는 누리의 어려움은 청소년. 고3까지 있어요. (참여자4)

저희처럼 초등 중등을 계속 같이 돌보던 기관들은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게 돼도 같이 돌보면서 어떤 모델을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해보니 좋구나 어떤 시범모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여자6)

3_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는 총 7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외국인주민 5명, 내국인 2명이 참여
 -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10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였으며 각기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각 기관에 자녀 돌봄을 위탁하였음
 -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1회씩 진행 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개략적인 인적사항은 [표 3-3]과 같음

[표 3-3] 연구 참여자 현황_2

명단	이주 여부	위탁 기간	직업	연령	성별	비고
지역주민1	외국인주민	7년	서비스업	4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2	외국인주민	4년	자영업	4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3	외국인주민	4년	서비스업	4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4	외국인주민	6년	자영업	40대	남	
지역주민5	외국인주민	2년	자영업	30대	여	
지역주민6	내국인	6년	사무직	3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7	내국인	10년 이상	서비스업	40대	여	

- 개별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큰 틀에서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와 '방과후 돌봄의 과제'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에서는 일차적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게 된 계기와 방과후 돌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 동시에 학습 및 야간·토요 돌봄 등 방과후 돌봄 기관에 부모가 의존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방과후 돌봄의 과제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과 내·외국인주민 부모 간의 교류 확대, 돌봄의 지속성을 들 수 있었음
 -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은 학업 지원 외에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가 주로 등장하였음

- 내국인·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 확대는 실제 접촉이 많지 않지만,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돌봄의 지속성 확보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돌봄제공자 역할의 지속성 확보와 청소년기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표 3-4] 분석 결과_2

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	▪ 자녀 돌봄의 보루	• 돌봄 방지 예방 및 사회적 적응 위해 이용
	▪ 방과후 돌봄의 긍정적 경험	• 학업 및 일상의 도움 및 아이들간 교류 확대
	▪ 부모들의 돌봄 의존	• 야간/토요 돌봄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존 확대
방과후 돌봄의 과제	▪ 돌봄에 대한 추가적 욕구	• 봉사활동 및 내·외국인주민 교류 확대와 게임 중독 예방
	▪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와 차별	• 자녀 방치와 다문화에 대한 낙인이 차별로 확대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 교류 필요	• 일상적이고 상호문화적인 교류 필요성
	▪ 돌봄의 지속성 강화	• 돌봄 제공자 및 연령별 돌봄의 지속성 필요

1)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7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인터뷰에서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은 크게 자녀 돌봄의 보루와 방과후 돌봄의 긍정적 경험 및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정리하였음

(1) 자녀 돌봄의 보루

-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을 자녀 돌봄의 보루라고 명명한 것은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으며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외국인주민 가정의 특성 상, 방과후 돌봄 기관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제공 기관임
- 외국인주민들은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최대 2년 가까이 기다리기도 함

친한 친구 같이 이렇게 처음에 친구가 신청하고 우리는 그때는 이미 사람 다 차서 못 들어간다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자리 있다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동우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내보고는 더 좋아요. (지역주민5)

전 처음엔 몰랐는데 다른 분들에게 여쭙봤죠. 방과후가 낫냐 여기가 이제 낫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나가도 이쪽이 낫다고. 딱딱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별로라고. (지역주민3)

그때 그 분이 계시니까 제가 버스에다 태워놓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몇 달 그러다 보니까 기사 분이 그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아동센터를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지역주민4)

- 자녀들이 ADHD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 경우 방과후 돌봄 기관의 돌봄 제공이 더욱 중요함
 - 이는 외국인주민들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많지 않아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

학교에 가면 따로 상담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선생님이 여기 이런 데, 이런 데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소개해서 온 거 같아요. (지역주민2)

여기 센터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다행히 일단은 다녔던 여기 동구로초등학교나 구로중학교 담임들 다 괜찮았었어요.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이런 거 있는데 해보실래요? 괜찮아요. (지역주민1)

- 내국인 주민들도 저소득층이면서 자녀들이 돌봄에서 방치되거나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외국인주민과 비슷한 형태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
 - 이것으로 보아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특성이나 욕구가 일정부분 겹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일단은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올 때까지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있을만한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추천 받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제기가 됐어요. (지역주민7)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데가 있다 마침 티오가 비었는데 갈 의향이 있느냐 해서 거기 학교를 그만두고, 돌봄을 그만두고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지역주민6)

(2) 방과후 돌봄의 긍정적 경험

- 외국인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의 대표적인 예로 학업에서의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놓치기 어려운 부분을 방과후 돌봄 기관이 메꿔주고 있음

제 마음은 그냥 한국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특히 공부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학원 가기도 돈도 어렵고. 그래서 파랑새 이렇게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선생님들도 좋고. (지역주민5)

그냥 학원 다닐 때도 학원에서 다 공부하고 오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씩 지도하고 했는데, 크면 클수록 아예 이제는 저랑 말도 안 듣거니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지역주민2)

네. 학교 끝나고 오면 선생님이 숙제도 일일이 다 가르치고 애들 모르는 거 다 해 주고. 그런 쪽으론 속 썩이는 거 없는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니까. (지역주민3)

-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행동 지도 등까지 이루어지기에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언급되었던 것처럼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거나 퇴근이 일정치 않은 외국인주민들의 특성 상 방과후 돌봄 기관은 믿고 맞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초등학생이랑 다를 거 같은데. 센터장님이 그런 거 사소한 거 까지 다 지도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괜찮은 거 같더라구요. 소소한 면까지, 애들이랑 트러블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컨트롤 해주시고. (지역주민2)

저희는 맞벌이니까 5시 퇴근할 때도 있고 6시 퇴근할 때도 있고 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시까지니까 넉넉히 되니까 마음 놓고. 여기 맡겨놓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역주민3)

- 외국인주민 학부모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의 돌봄이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저녁 식사를 들 수 있음
 - 아이 혼자 식사를 할 경우 영양 공급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으나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할 경우 저녁 식사나 간식 등을 통해 영양 문제가 해소
 - 또한 토요 돌봄이나 과제 수행 등의 경우에서도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이 자녀들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센터를 안 다녔다 그럼 저녁시간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애 밥 해먹여야 되지. 저는 저녁을 안 먹어요. 애는 먹거든요. 크는 중이고 그래서. 또 먹으려고 하니까요. 밥 해줘야 되지. 밥만 하나요? 공부도 숙제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 다 하거든요.(지역주민4)

제가 옛날에는 출근하면서 XX가 혼자 밥 먹었어요. 제가 밥 하고 혼자서 밥 먹고. 지금은 거기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토요일도 나갈 수 있고 XX도 좋고 너무 좋아요. (지역주민5)

- 앞서 자녀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경우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DHD 치료나 심리 치료의 과정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돌봄제공자의 관심과 지지가 아이들의 행동이나 심리를 교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제가 혼자 키우면서 만약에 지역센터를 안 보냈으면, 아마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했어도 아마 지금만큼은 호전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최소한 학교 끝나서 학원 안 가고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 부족한 부분이나 많이는 못채워도 적당히 그냥, 최소한의 선을 자기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지역주민1)

반에서도 싸움하고 맨날 싸워서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심리상담도 받고 그랬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센터 선생님이 잘해주시고, 그리고 철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센터에 도움을 저는 엄청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4)

- 구로구의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은 내국인 자녀들과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아이들 간의 일상적 교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사회관계 형성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

이 친구가 교포든 중국아이든 한국아이든 상관없어요. 같이 노는 친구들도 한국아이들도 있고 교포아이들도 있어요. (지역주민1)

저희 XX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뭐 저기만 다른 거일뿐이지. 같이 생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선 그냥 뭐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거 같았어요. (지역주민6)

- 이것은 같은 문화권에서 소통하며 성장하여 아이들 간의 외부적인 모습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됨
 - 다만 부모들의 경우 '부모'가 외국인주민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아이들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는 모습을 보임

사실 다문화라는 게 애들만 봐서는 다문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날처럼 뭔가 부모님들이 다 오셨을 경우 너는 다문화 아이였구나 너는 다문화 아이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6)

아이들끼리는 뭐 제 눈에선 잘 놀긴 해요. 놀긴 하는데 뭐 중국에 한국에 아직 저학년 애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지역주민7)

(3) 부모들의 돌봄 의존

- 외국인주민들의 경우 토요 돌봄 및 야간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큰 편으로 이것은 외국인주민들의 직업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돌봄이 제공되더라도 외국인주민 부모들은 그 이상의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방치가 이어짐

토요일도 이 시간까지 하는 거 같아요. 일곱시 반, 여덟시 수업 있으면 조금 더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지역주민2)

그게 제가 토요일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방학 동안에도 파랑새에 보내는 거예요. (지역주민5)

제 기준에선 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7,8시까지 놀다가 갈 때를 보면 엄마는 그러면? 그러면 엄마는 오려면 12시에 집에 온다고. 엄마 어떤 일을 하시니 물어보면 대부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끝나면 집에 오면 11시다 12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야간 욕구가 강하실 거 같아요. (지역주민6)

- 내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주민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한부모의 경우 야간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큰 편이지만, 이것은 한부모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내국인의 경우 추가적인 돌봄 제공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있음

이렇게 늦게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먼저 잠깐 와있다든가 그래야 하나니까 야간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사용을 하겠는데 없다고 하나니까 그냥 사용을 하지 못 하고 너희들이 집에 먼저 와서 있어 내가 얼른 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면 저희도 이용을 하겠죠. (지역주민6)

다른 엄마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보단 자식이 먼저라서. 저는 야간이나 이런 건. (지역주민7)

-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학이 길어지고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하여 외국인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됨

제가 출근하면 제가 혼자 있는데 여기를 다넘으로써 그 시간 맡아서 공부하러 오니까. 저도 나가놀면 안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더라고요. (지역주민2)

학교 같은 상황은 애들 다녀도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선생님들이. 코로나인데 학생이 잘 지내냐는 것도 없고 그 다음 문자는 뭐 재난문자나 오고 언제 개학한다 그런 거나 오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역주민3)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아예 못가니까 세월이 반대로 됐어요. 아이가 저희가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서 강의 듣고, 당일의 강의를 듣고, 과제 풀고. (지역주민1)

- 방과후 돌봄 기관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등 부모들이 익숙하지 않고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해석됨
 - 다만 돌봄 기관에 대한 부모의 의존이 심화될 경우 돌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1,2학년은 EBS 방송을 봐야 하잖아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딱 앉아서 그걸 봐야 하는 거. 근데 막내가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데 여기 키움센터에서 1,2학년 아이들은 여기서 다 방송을 해주셨거든요. (지역주민7)

여기 오면 선생님이 칼같이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혼난다고.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가 온라인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여기 오면 선생님이 일일이 과제한 거 다 체크해주니까 애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역주민3)

2) 방과후 돌봄의 과제

- 방과후 돌봄의 과제는 크게 돌봄에 대한 추가적 욕구와 내·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 확대 및 돌봄의 지속성 필요로 요약할 수 있었음
-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외국인주민 부모 사이의 관계 구축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이 둘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

(1) 돌봄에 대한 추가적 욕구

-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욕구는 주로 아이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요구하였음

제가 봉사를 다니거든요. 보니까 1365에 벽화 그리거나 이런 봉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크게 해서 (아이들이) 네, 봉사. 단체봉사 있잖아요. (지역주민1)

네 그리고 봉사. 봉사. 아이들 다같이. 아이들 마음을 키워주는 걸 제가 위주로. (지역주민5)

- 봉사활동은 구체적으로 벽화나 배식봉사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었으며,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상대적 약자들에 대해서 인식하길 바랍

누군가에 내가 그린 완성품에 대해서 거기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만족하거나 이쁘게 그려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나 그런 걸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든

가 아니면 다른 내 배식봉사나 이런 걸 해도, 배식봉사 같은 건 사실은 노약자나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아, 사회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지역주민1)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사회생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자기만 하지 말고. 왜냐면 되게 사람들 내가 잘 못 살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잘 살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이것도 만족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고. (지역주민5)

- 내국인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
 - 이것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내국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에,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직도 XX는 사회, 친구랑 지내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집에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XX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저기가 조금 그런 거 같더라고요. (지역주민2)

한국인 애들 하고는 유치원 다닐 때만. 유치원을 2년 다녔어요. 그래서 2년 다닐 때만. 접촉할 일이 거의 없죠. 지금도 학교 애들보단. 학교 애들도 다 지구촌 학교 다니다 다 전학 갔거든요. (지역주민4)

네. 그럼 훨씬 소통하는 데.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는 방식도 다를 거고 표현하는 단어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중학교 가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들이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지역주민4)

-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방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범죄 및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 역시 있었으며, 실제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슈 역시 등장하고 있기에 행정과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컴퓨터로 신용카드로 뭘 샀는데 그게 뭐가 잘못 돼서 한 달에 한, 3~4개월 사이에 70만원 나갔어요. (지역주민2)

-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주민들의 직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설문에서도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임

애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늦게까지 놀고 그러다 보니까 8시 반까지 놀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누가 없어도 직원이 없어도 그냥 놀 수 있는. 놀이터라도. (지역주민4)

(2)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와 차별

- 외국인주민의 자녀 방치와 여기서 파생된 차별의 경우 부모들의 인터뷰에서 주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분석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내국인 부모와 외국인주민 부모 사이에 관계 및 소통의 부족이 외국인주민 아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주민 부모의 돌봄 방기와 이로 인해 방치된 외국인주민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인주민 아이들은 부모의 방치 아래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는데, 돌봄 기관이나 학원들을 다니지 않을 경우 방치로 인한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학부모 모두 방치된 외국인주민 아이들을 인지하고 있음

안 다니는 애들은 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놀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게임하고 모여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XX도 보면 주말에는 안 가니까 친구들과 약속해서 같이 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게임하고 그렇더라고요. (지역주민2)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안 다녀서 여기서 이제 뺐어요. 아이가 나갔어요. 지금은 현재는 센터도 안 다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니까 밖에서 계속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지역주민1)

제가 그런 아이를 하나 봤거든요. 큰 애 때. 그래서 부모님이 새벽에 돌아오시니까 애가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결국 개가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고 진짜 막 이렇게 컸던 애가 있거든요. (지역주민7)

- 부모의 돌봄에서 방치되고 이로 인해 탈선까지 하게 되는 외국인주민 아이들의 모습은 소문이 아닌 내국인 주민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경험하는 현실로, 내국인 주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위의 경험을 통해 증폭되는 것으로 해석됨
 - 이 때문에 내국인 주민들은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를 배제하려고 하며, 외국인주민 아이들에 대해 편견이 없더라도 부모가 외국인주민인 것을 알게 될 경우 아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차별은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써 지역 특성상 외국인주민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내국인 부모들이 가진 부정적 경험과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센터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한국 분들의 어머니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배제하고 아이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비치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6)

엄마들이 문제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애. 재네 엄마 중국사람이야. 이제 엄마들끼리 먼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란 아이도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 보면 한국말 잘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부모를 보면 알거든요. 야 재네 엄마 중국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엄마들이. 어 그런가 봐. 그럼 재는 다문화 가정인가 보네 재도 중국애네. (지역주민7)

- 실제로 방치와 낙인은 보이지 않는 차별로 나타나는데, 외국인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원만한 내국인이라도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관계 형성에 대해 불편한 인식을 가지게 됨

중국에서 온 아이들. 그럼 그 아이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위생 상태도 그렇고 좀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역주민7)

중국 엄마들이 아이를 진짜 아이들을 방치를 해가지곤.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도 키움센터에서 그런 애들이랑 어울릴까 봐 좀 걱정이 되죠. 제 자식이 어울릴까 봐. 그건 솔직한 부모 마음이죠. (지역주민7)

(3)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 확대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방안은 돌봄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실제 현장 부모들은 위의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달리 실제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으며, 호응이 좋더라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 역시 존재

한 번 가서 다른 센터의 다른 부모. 또래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외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서로 다 바빠요. 저는 이제 여기 일찍 퇴근하니까 집도 가깝고 가끔씩 들여다봐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거의 안 오세요. 불려도, 호출을 해도 안 오세요. (지역주민1)

근데 그때도 딱 보면 중국 엄마들, 한국 엄마들 좀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려고 했던 취지도 잘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호응도 좋고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하게 됐는데. (지역주민7)

- 일시적 행사가 호응과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은 결국 외국인주민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들은 언어적인 어려움 이외에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내국인들과의 경제적인 수준 차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띠

이거는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시간 여유 있어도 상대방이 여유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먼저 다가가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애 뭐지? 난 바빠죽겠는데 힘들어죽겠는데 왜 자꾸 이러나 싶기도 할 수 있어요. (지역주민1)

여기서 엄마들끼리 부모교육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래도 따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걸 원치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의 교류는 사실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지역주민6)

저도 부담 되요. 다 같이 나가면, 만약에 나가서 놀고 하거나 첫째는 경제. 그것도 그렇고. 첫째 다 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차 없어요. (지역주민5)

- 부모들 사이의 교류 없음은 결국 다시 되돌이표로 각 집단끼리 뭉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며, 이는 곧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주민 자녀의 차별로 다시 나타나게 됨

한국 사람들끼린 한국 엄마들끼리 만나게 되고 그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생기면서, 조금 다문화 아이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물들일까 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역주민6)

전 중국말 못하고 그 사람은 한국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즉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선이 그어지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역주민7)

- 부모들 사이의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부모와 외국인주민 부모 사이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에서 답을 찾을 필요 있음
- 아래의 사례는 학습 도움 등에서 일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던 경우로 상호간에 긍정적인 기억으로 인식됨
 - 이는 곧 일상적인 접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 외국인주민 역시 일상적인 접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함
 - 이것은 베를린 노이퀼른 구의 도시지역어머니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경험에서 나타난 긍정적 피드백을 정책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저희 집 맞은 편 건물에 XXX 어머니라고 있어요. XXX 여기 다닐 거예요. 동생이랑. 맞네. 이 분은 저희 맞은 편에 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이 분도 너무 사람이 좋아요. (지역주민3)

저희 큰 애가 초등학교 같이 들어갔을 땐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매일 들고 오는 거예요 알림장을. 그러면 제가 일일이 얘기해주고 이런 건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밑에 동생들도 한번 해보니까 잘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움 줘 주고. 아니면 XX 여기 할 때도 XXX 어디 보내냐고. 여기 보낸다고 그래서 같이 다녔던 친구도 있고 그렇죠. (지역주민7)

(4) 돌봄의 지속성 강화

- 돌봄의 지속성은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크게, 청소년 돌봄의 필요성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속성 요구로 정리되었음
- 청소년 돌봄은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 돌봄의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
 - 그러나 참여자들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 외국인주민과 한부모 가족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경우 청소년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큼

- 참여자들은 방과후 돌봄이 청소년 돌봄까지 연계되지 않기에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그것도 고민이죠. 나중에 6학년 되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때도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가 가있을 데.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근데 여기 제가 끝인 줄 아는데. (지역주민3)

여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똑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나 여기가 좋은데. 또 다른 데를 가야 하는 게 싫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한 번에 쪽 갔으면 좋겠는데. (지역주민6)

- 실제로 청소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부모들은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다른 돌기관으로 옮기면서 겪게 되는 적응 과정과 여기서 발생하는 탈락 역시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음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받는다 하면 아마 XX가 또 그 중간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옮기게 되면, 지금만큼 이렇게 연결되서 이 환경에서 연결되서 다녔을 때, 이만큼 안정적으로 되진 않았을 거 같아요. (지역주민1)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 센터를 나가게 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절반이 넘게 다른 센터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그냥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지역주민6)

- 청소년 지원은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더욱 중요한데,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청소년 돌봄은 중도입국자녀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제 친구 아들과 이제 5학년 왔어요. 이제 6학년까지 2년을 지내는데 반 친구 하나도 못 사귀었어요. 한국 아이들. 왜 한국인 아이들 한 명도 못 사귀었어? 중국 아이가 친구 되는지. 한국 아이들이 다 게임이 서로 얘기하고 난 그 게임 모른다 그걸 제가 들었고. (지역주민5)

- 마지막으로 돌봄제공자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돌봄제공자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주요한 문제였음

- 돌봄 제공자의 경우 처우 문제와 연결되며, 기존 돌봄 체계에서 공적 돌봄으로의 변화와도 연결되기에, 기존 돌봄 체계의 활용과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 됨

애가 옛날 그 선생님은 예쁘게 생겼는데 그 선생님은 애들한테 다 맞춰줬는데 선생님 바뀌고 나니까 그 선생님은 딱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역주민3)

아이가 많을 때도 있을 거고 적을 때도 있을 건데 그렇게 왜 1명 2명을 기준으로 선생님 한 분은 약간 한 분은 나가셔야 돼, 한 분은 있어도 돼.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게 조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앞선 선생님도 되게 오래 계셨거든요. (지역주민6)

4_소결

- 본 질적조사는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운영하거나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센터장(이하 실무자) 및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기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다문화 돌봄 관련한 주요한 현안은 적극적 행위자로서 행정의 역할 강화와 함께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이었음
 - 반면 학부모들의 현안 중 중요한 것은 돌봄 기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부모 교류의 확대에 나타났음

[표 3-5] 실무자 및 주민 현안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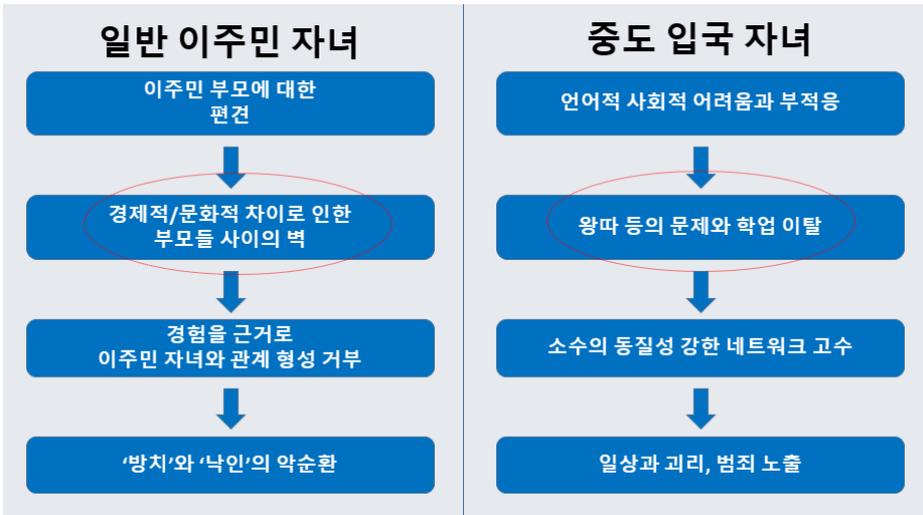
돌봄 기관 실무자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학부모
1) 중도입국자녀 적응 - 적응 과정의 시스템 마련	1) 돌봄 기관의 역할 강화 - 돌봄에서의 방치 예방과 사회화
2)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 - 외국인주민의 돌봄 수요 증가	2) 부모 교류의 확대 -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교류 필요
3) 행정의 역할 강화 -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 요구	3) 돌봄의 지속성 강화 - 돌봄 제공자 및 연령별 돌봄의 지속

- 실무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경험과 인식으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이 도출되었으며,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청소년 돌봄의 필요성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났음

[표 3-6] 실무자 및 주민 현안_2

실무자 및 주민 공통
1) 방과후 돌봄에 대한 외국인주민 의존 - 코로나 19 이후 돌봄에 대한 의존 심화
2) 청소년 돌봄의 필요성 -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부모의 계층적 욕구
3) 돌봄기관의 사회적 위험 대응 요구 -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외국인주민 자녀 문제는 공통된 현안으로 중도입국자녀들이 겪는 문제도 나타났으나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역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었음
 - 구로구의 주된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그 특성 상 내국인 자녀와 표면적인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내국인 부모들은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을 목격
 -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부모간 소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방치된 외국인주민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 우려한 주민들은 외국인주민 아이와 자녀의 관계 형성을 거부하게 됨
 - 결과적으로 외국인주민 아이들은 부모의 방치와 다문화에 대한 낙인이 결합하면서 다시 지역사회에서도 방치되는 악순환에 처함



[그림 3-1] 외국인주민 자녀 적응 문제

- 이처럼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제공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부모의 돌봄 의존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음
 - 욕구와 의존 문제는 방과후 돌봄 기관의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부 기관의 실무자들은 돌봄 제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역 돌봄 네트워크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구로구의 경우 지역내 다문화 및 돌봄 자원이 풍부한 편이기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방과후 돌봄 기관과 지역 사회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곧 적극적 행위자로서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며, 다문화 돌봄 허브에 대한 요구 역시 행정의 역할 개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단순히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슷한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 주민과의 계층적 고려를 통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제공이 필요



05

결론 및 정책제언

1_결론

2_정책제언

05 결론 및 정책제언

1_결론

- 본 연구는 “구로형” 다문화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무자와 학부모 등 방과후 돌봄 당사자들에 대한 질적조사를 통해 다문화와 연관된 방과후 돌봄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구로구 아동·청소년은 2015년 76,335명에서 2020년 63,813명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16.8%에서 14.6%로 감소
 -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같은 기간 외국인주민 자녀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19세 등 중도입국자녀들이 주로 분포된 연령대의 경우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내국인 주민들에 비해 돌봄의 제공과 학습 도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곧 이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필요성으로 이어짐
 - 구로구의 경우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전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기관이 존재하나, 이와 별개로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도 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곧 기관 실무자들 및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관계 형성으로 이어짐
- 본 연구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내국인 자녀들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 자녀들은 일상적으로 외국인주민 자녀들

- 과 함께하고 생활하지만, 외국인주민 친구가 없거나 같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함
- 반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 등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과 실제 아이들이 느끼는 현상이 괴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의 개발 필요성 있음
 - 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 두 집단 모두 놀이공간 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욕구가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경우 ‘가로등 설치’와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욕구가 드러났는데 이것은 주거환경의 개선 이외에도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돌봄에서 방치되어 있어 야간 돌봄 등이 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됨
- 실무자 및 학부모 대상 간담회와 개별 인터뷰에서 도출된 것은 일차적으로 외국인주민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양상이었으며,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 증대되었음
- 또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낙인도 나타났는데,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낙인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부모 간의 소통부족이었음
 - 동시에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 구축 및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_정책제언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안에 대한 접근은 크게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체계 강화’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 돌봄 체계 구축’이었음
 -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민·관의 협력강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폰 중독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와 활용 역시 중요한 과제임
 - 다문화 돌봄 허브의 구축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문화 돌봄 허브는 크게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통일된 다문화 교육부터 외국인주민에 대한 자원 연결, 중도입국자녀의 돌봄 기관 연계 등 다방면에 걸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다문화 돌봄 허브 기관이나 인력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연계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기반을 둔 돌봄 네트워크의 확대 및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 재구성을 바탕으로 함
 -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낙인은 결과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소통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두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상호문화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단순히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슷한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 주민과의 공통성을 고려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제공이 필요함
 - 구로형 서비스 체계 구축은 청소년의 수용 역시 감안해야 하며, 시범사업의 형태로 서울시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가정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다문화와 관련된 구로구 방과후 돌봄에 대한 현안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험 및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질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학령기 이전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반감 등 부정적 인식 역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는 상호문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1) 민·관 협력을 통한 방과후 돌봄 체계 강화

- 민·관 협력은 방과후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조건으로써 크게 ‘돌봄 협의체 활성화 등 민·관 협력 필요’와 ‘다문화 돌봄 허브 등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량 강화’로 정리되었음
- 민관 협력 강화는 외국인주민 자녀 등 다문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행정의 명확한 목표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문화 돌봄 허브 구축은 다문화 돌봄 체계 구축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1) 돌봄 협의체 활성화 등 민·관 협력 필요

-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는 행정의 역할 강화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초등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공적 돌봄 강화가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구로구 역시 방과후 돌봄에서 행정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구로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융합형 키움센터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소하여,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있으나, 돌봄 체계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
- 돌봄 분야에서의 행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적 돌봄을 포함한 돌봄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철학이 밑받침 되어야 하며, 돌봄에 대한 철학은 구로구의 특성상 다문화 감수성을 필요로 함
 - 다문화 감수성이 포함된 철학과 목표 제시는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공적 돌봄 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야 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문제에 대한 조정과 외국인주민 및 내국인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 주민과 방과후 돌봄 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민·관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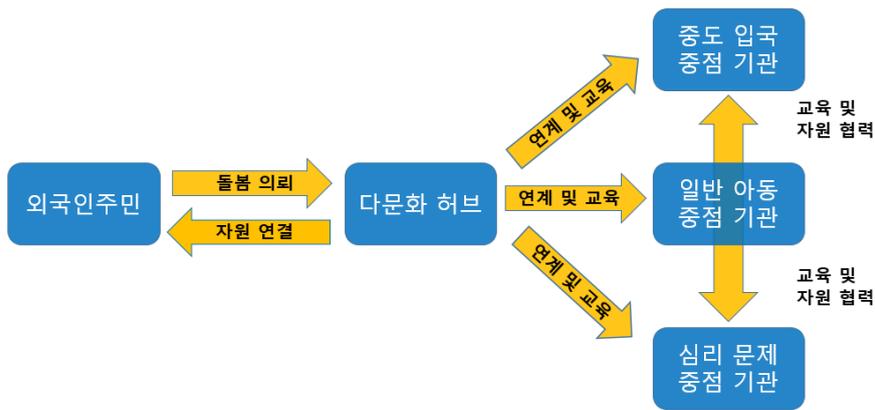
- 행정의 역할 강화는 단순히 행정이 돌봄 체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 돌봄 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청 돌봄 협의체의 재활성화가 필요하며, 돌봄 협의체를 바탕으로 구로구의 돌봄 현안들에 대한 정보와 자원 공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돌봄 협의체 활성화는 단순히 돌봄 기관 및 학교뿐만이 아닌,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중독센터 등 아동·청소년 돌봄과 연관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 및 스마트폰 중독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및 가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구체적인 철학이 밑받침 된 행정과 민간의 협력 강화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초 토대로 이해할 수 있음

(2) 다문화 돌봄 허브 구축 등 방과후 돌봄 기관 역량 강화

-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다문화 돌봄 허브의 구축과 기존 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문화 돌봄 허브는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다문화 돌봄 허브

의 개설에 앞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은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의 돌봄 수요의 기관 연계 및 돌봄 기관 실무자들과 이용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함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자원 연결까지 고민할 수 있음
-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과 기능의 방향 설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 돌봄 수요와 연계에 한정하여 마을돌봄조정관과 같은 개인에게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과 자원 연계 등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돌봄 전문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4-2] 다문화 돌봄 허브 개요

- 전자의 경우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은 마을돌봄조정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음
- 두 번째 방안의 경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에 다문화 돌봄 허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와 더불어 구로구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네트워크는 구로구의 방과후 돌봄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이자 자원이기여 지역아동센터 간 네트워크를 돌봄 체계 전반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 중도입국자녀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 내국인임에도 야간 돌봄이나 토요일

돌봄이 필요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인 돌봄 제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돌봄 네트워크의 확대는 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민·관 협력체계의 강화를 필요로 함
- 마지막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새로 구축되고 있는 돌봄 체계의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함께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 전반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것은 다문화 돌봄 허브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2)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온마을 돌봄 실현

-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온마을 돌봄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마을 돌봄에서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외국인 부모의 일상적 연계 공식화’와 ‘청소년을 포함한 구로형 돌봄 체계 시범 사업 제안’으로 정리되었음
- 상호문화주의는 구로구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점적인 키워드로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사회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고 사회적, 인종적 다양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조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상호행동(접촉 또는 만남)의 장려와 이를 위한 공적 공간의 활성화를(최병두, 2014) 들 수 있음
- 내·외국인 주민의 일상적 접근과 구로형 돌봄 체계의 구축은 이와 같은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으며, 구로구에 맞는 온마을 돌봄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 조건임

(1) 내·외국인 부모의 일상적 연계 공식화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일상적 연계는 방과후 돌봄 등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지점으로 이를 공식화 하는 방안이 필요
 -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및 학교에서 간담회 등의 행사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접촉을 꾀하고 있으나 두 부모 집단 모두 일회성의 행사

-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각각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간에 거리를 두고 있기에 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나,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 접촉만으로 해소할 수 없음
 - 다만 학부모 사례에서 보듯 일상적인 접촉이 지속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일상 속 소통이 중요한 상호문화적 접근과 그 궤를 같이 함
- 사적이고 일상적인 접촉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베를린 노이켈른구의 ‘도시지역 어머니 모임’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 노이켈른구와 구로구 사례의 차이점은 이주 가정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이주민인지 내국인인지 차이로 구로구의 사례는 이주민들만의 네트워크 구성이 아닌, 내국인과 이주민이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구로구 사례에 상호문화적인 접근과 교육이 접목되어야 하는 것은 일상 지식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외국인주민의 문화 및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표 4-1] 노이켈른구와 구로구 사례 비교

도시 지역 어머니 사례	구로구 실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배경 어머니가 이주 가정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 • 보육 시설 소개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관계 개선 • 6개월간 아동 발달과 언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 교육 지원 • 노이켈른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어머니가 이주 가정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 • 알림장 내용 확인 등 일상적 교류 • 방과후 돌봄 기관 및 학원 소개 등 일상적 네트워크 역할 • 사적 도움 형태로 연속성 부족 • 자원활동 개발·체계적 교육 등 공식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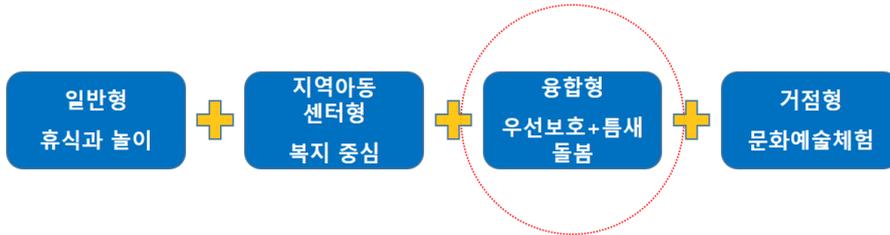
- 실제로 노이켈른구의 사례에서는 이주배경이 같은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교육을 받을 뒤 다음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관계 형성이 아닌 장기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함
- 또한 구로구의 사례는 비공식적 사례이며, 일상적인 교류 위주로 진행되기에 연속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활동의 개발 및 노이켈른구의 사례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과 접근이 필요

- 구로구는 상호문화도시 선언을 바탕으로 상호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기에, 내·외국인주민 부모에 대한 상호문화적 접근의 한 예로써 구로형 도시지역 어머니 모임을 정책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내·외국인주민 부모를 위한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내·외국인주민 부모를 위해 개발된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노이퀼른구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음

(2) 청소년을 포함한 구로형 돌봄 체계 시범사업 제안

- 구로구의 경우 외국인주민과 함께 저소득층의 비중 역시 높은 편이기에 청소년 돌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며, 구로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주민의 공통된 욕구와 수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 다만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진행 중인 공적 돌봄 체계의 경우 초등돌봄 위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청소년 돌봄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구로구 역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주의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청소년 돌봄의 약화가 우려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기관의 경우 그 숫자가 적기에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
 - 동시에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주민 자녀 중 집중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기존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 이외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
 - 또한 온드림교육센터의 경우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기에 구로구의 중도입국자녀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통합된 유형인 융합형 키움센터를 구로의 특성에 맞는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형태로 시범사업화 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구로구에 개소된 융합형 키움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이 외국인주민이 주로 거주하

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가 공적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및 활용

- 최종적으로 구로형 융합형 키움센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청소년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유도해야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제되었으나 학령기 이전 자녀의 보육과 돌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학령기 이전 아동 및 청소년 등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의 개발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에 있어 연령대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3) 추후 연구 과제

-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크게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보육 시설 연계 방안 검토’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돌봄과 제도권 교육의 연계 방안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반감 및 부정적 인식 극복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나타났음
- 학령기 이전 아동의 경우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아동의 숫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주민 자녀는 증가하고 있기에, 보육 시설에서도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주민의 보육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 환경의 변화는 곧 기존 보육 서비스와 보육 시설의 변화를 요구하며, 다문화 돌

봄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도 학령기 이전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함

- 보육 시설의 실무자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정책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시설의 운영 및 설계 시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내·외국인주민 자녀의 일상적·상호문화적 접근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구로구의 보육 시설 및 실무자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
- 또한 지역별·시설별 다문화 욕구 파악을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2] 연구 과제 도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보육 시설 연계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기 이전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로 보육시설의 다문화 감수성 필요 ▪ 지역별·시설별 다문화 욕구를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연계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돌봄과 제도권 교육 연계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 비중 높은 타 지자체 사례 참고 ▪ 외국인주민 자녀의 실제적인 욕구 어려움 파악 필요
지역주민들의 반감 등 부정적 인식 극복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 막고 효과적 돌봄을 위한 선결 조건 ▪ 부정적 인식 극복은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위한 주요 과제

- 방과후 돌봄과 제도권 교육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정규 제도권 교육은 아동·청소년 특히 청소년의 성장 및 진로 탐색에 큰 영향을 끼침
- 구로구에서 성장하는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의 성장과 중도입국자녀의 적응을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었거나 외국인주민의 비중이 높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의 사례를 단순히 참고하는 것이 아닌 사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의미 파악을 바탕으로 구로구 외국인주민 자녀의 현안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

- 또한 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되지 못한, 내·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의 실제적인 욕구와,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 및 어려움에 대한 파악이 필요
- 마지막으로 구로구를 포함한 서남권에서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확인하며, 다문화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의 극복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내국인들의 경우 외국인주민과 교류하더라도 외국인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의 극복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선별적인 조건
 - 구로구를 포함한 서남권의 경우 교육청의 이중 언어 교육 사례 등에서 나타났듯이 기존 내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였던 외국인주민과의 상호소통 및 정착을 위한 방안들이 무산된 바 있음
 - 구로구의 경우 상호문화도시로써 발전을 꾀하고 있기에, 부정적 인식 극복은 단순히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문제가 아닌 다문화 정책 전반에 걸친 주요 과제로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강민욱·권순용, 2017,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바라본 학교체육진흥정책의 방향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학교참여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5(4).
- 강희영·권용희, 2013, 「서울시 다문화가족생활실태분석을 통한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동희, 2016,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예측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학교보건학회」, 29(3).
- 김순규·장아영·이소임·유안나, 2016,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 김세민·유강수, 2015, “로봇 활용 STEAM 수업이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인숙, 이경희, 2011, “무용/동작 치료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7(4).
- 구로구청, 201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 구로구청.
- 남부현·김경준, 2018,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한국청소년 연구」, 29(2).
- 남부현·김지나, 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 문화」, 4(1).
- 남부현, 오영훈, 한용택, 전영숙, 2016, 「다문화사회교육론」, 서울: 양서원.
- 노성향, 2017, “다문화가정 관련 방과후학교 연구의 과제와 전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4(2).
- 노정은, 2015,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언어 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 경기도 A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민족연구」, 64.
- 박군자, 2014,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아동 만족도 조사」,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수, 2013, “중도입국자녀 인권 현실과 인권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의

발표자료집 (1).

- 박선권,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영숙, 2016,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아동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다층모형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 박형민·조성현·김선희, 201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희·박주형·김왕준, 2016,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교육현실과 과제: 서울 서남부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9(2).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a,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법정부공동추진단, 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 법무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경기: 법무부.
- 서울시, 2019,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기본계획, 서울: 서울시청
- 서울시, 2020,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성화 지원계획」, 서울: 서울시청
- 서종건·김민경·김준·이자은, 2020, 「외국인 주민 정착을 위한 구로구 다문화 정책 의제 발굴」, 서울: 구로구청.
- 서혜전·이미애, 2016,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사례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2(1).
- 송민경·김진원,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입국 전후 삶에 대한 연구 - 조선족을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58.
- 송이은·이지혜, 2017,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심미영·이들녀·박종옥,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
- 이상균·박현선·노연희·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38.
- 이상호·김대균·박균열, 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36.

- 이선애·김환남·천재현, 2013, “보육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아동의 어린이집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아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3).
- 이수진·김현주,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3(5).
- 이승미·이해응·이화용, 2017,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영주·이주영,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안산시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7(2).
- 이혜숙·신인철·유삼현·이영주, 2019,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이혜숙·이영주, 201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양계민·장윤선·정유미·김주영,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명숙·조해정·박수영, 2012,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부모와 별거기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1).
- 윤은영, 2017,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7.
- 장덕희·신효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 장미정, 2012, 「아동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양·이혁수, 2018, 「온종일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안) 개발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전재일·신효선, 2008,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4(3).
- 최병두, 2014, “상호문화도시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현대사회와 다문화」, 4(1).
- 고양신문, 2020.06.21.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 <http://www.guro.go.kr/> (구로구청)
-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 <http://www.index.go.kr/> (e-나라지표)
- <http://data.seoul.go.kr/>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 <https://icare.seoul.go.kr/>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 <https://www.icareinfo.go.kr/> (아동권리보장원)
- <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부록1 방과후 돌봄 실태조사 및 다문화 인식조사

- 해당 설문지는 「2016년 방과 후 센터 이용아동 패널조사」의 제3차 조사표와 장미정의 석사학위논문(2012)의 조사표를 참조하였음
- 해당 설문지 활용을 위해 아동 돌봄 전문가 및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전문가의 연구 자문을 받았으며, 구로구 방과 후 동시에 내국인 주민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 척도를 부분 활용하였으며, 척도 활용을 위해 연구 자문을 받았음

**구로구 다문화 방과후
돌봄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20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방과후 교실』 등에서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실태조사 및 다문화 인식조사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구로구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5. .

연구주관기관 : 구로구청 구정연구반

연구책임자 : 서종건 연구원

연구책임자연락처 : writerseeu@guro.go.kr

응답자
성함

응답자
연락처

설문 문항4)

〈방과 후 센터 이용〉

[문1] 방과 후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방과후 교실’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응답을 골라주세요.

번호	방과 후 센터 이용 이유
①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②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친구가 같이 다니자고 해서
④	이웃이 추천해줘서
⑤	센터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서
⑥	주민센터 공무원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⑦	학교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⑧	학원가는 것 대신
⑨	기타

[문2] 방과 후 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교에 가는 날과 가지 않는 날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구분	학교 가는 날 (월 ~ 금요일)	학교 가지 않는 날 (토·일요일, 공휴일)
방과 후 센터에서 지내는 시간	()시간 ()분	()시간 ()분

4) 해당 자료는 「2016년 방과 후 센터 이용아동패널조사」의 제3차 조사표와 장미정의 석사학위논문(2012)의 조사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방과 후 센터 이용 경험〉

[문3] 방과 후 센터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골라주세요.

방과 후 센터 선생님들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친절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방과 후 센터의 시설과 환경은 어떠한가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골라주세요.

내가 다니는 방과 후 센터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공부하는 곳이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하는 곳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화장실이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식사하는 공간이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5] 방과 후 센터에서 받고 있는 교육과 활동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나요? 다음 각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골라주세요.

방과 후 센터는 나의(내가)...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학교성적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①	②	③	④	⑤
3) 자신감을 갖는 데	①	②	③	④	⑤
4)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 지는 데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 지는 데	①	②	③	④	⑤
6) 행동 변화에	①	②	③	④	⑤
7) 성격 변화에	①	②	③	④	⑤
8) 건강에	①	②	③	④	⑤
9) 다양한 문화생활(영화, 연극관람 등)을 경험 하는 데	①	②	③	④	⑤
10) 특기 개발에	①	②	③	④	⑤
11) 남을 돕는 것에 관심 갖는 데	①	②	③	④	⑤
12)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6] 방과 후 센터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음 각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골라주세요.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계속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에게 방과 후 센터에 다니도록 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7] 방과 후 센터에 나오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응답을 골라주세요.

번호	센터에 나와서 가장 좋은 점
①	숙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②	친구가 있어서
③	이용하기 편리해서
④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⑤	선생님이 좋아서
⑥	기타

〈일상생활〉

[문8]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문9] 방과 후 센터에서 친한 친구는 몇 명인가요?

()명

[문10]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해당 하지 않으면 문 12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1] 학생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해당 하지 않으면 문12로)

최하	하	중	중상	상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경험 및 생각〉

[문12_1] 다음은 다문화에 대한 내국인 주민의 경험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문화란 국내 거주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온 가족, 결혼이주여성 가족, 북한 또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주민 가족(중국 동포 포함)을 가리킵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세요. (내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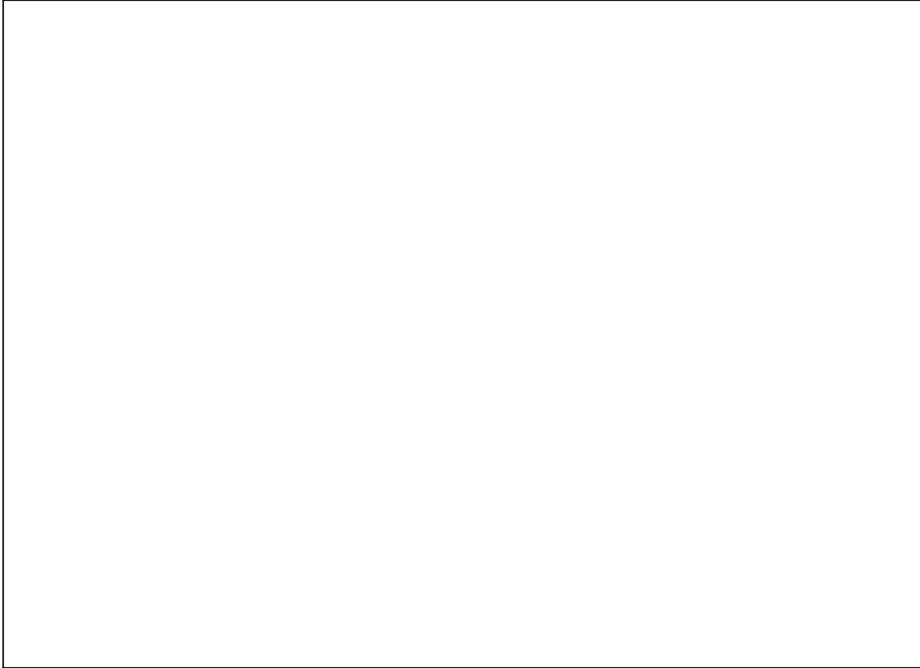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한 친구 중 다문화 친구, 형 혹은 동생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다문화 친구와 집에서 함께 놀거나 함께 식사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나라 사람의 피부색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정 아동을 내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12_2] 다음은 다문화 주민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문화란 국내 거주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온 가족, 결혼이주 여성 가족, 중국에서 온 외국인주민 가족(중국동포 포함)과 새터민 가족을 가리키며 내국인은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서 출생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세요. (외국인주민)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한 친구 중 내국인 친구, 형·언니 혹은 동생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국인 친구와 집에서 함께 놀거나 함께 식사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나라 사람의 피부색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친구들에게 내국인 아동을 내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기타〉

[문13]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부록2 질적조사 연구 안내문 및 동의서

- 본 질적조사 연구 안내문 및 동의서는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 및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

연구참여 동의서

- 연구제목: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 서종건 책임연구원(구로구청 구정연구반)

*연락처: 02-860-2075, writerseeu@guro.go.kr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구로구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로형” 돌봄 시스템의 기반구축 및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참여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현장감 있게 담기 위해 녹음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만약 인터뷰 도중이라도 본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녹음을 원치 않으실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인터뷰 후에는 내용 정리 후 의미 확인을 위해 1~2차례 추가적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인터뷰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____ 월 ____ 일 참여자: _____(서명)

연구대상자 동의서

□ 연구제목: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진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6.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2020년 ____월 ____일 연구진: _____(서명)

2020년 ____월 ____일 연구대상자: _____(서명)



2019-17-8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구로구청장

발행일 2020년 7월 31일

발행처 구로구 구정연구반

ISBN 979-11-969505-9-0 13060

0828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이 출판물의 판권은 구로구에 속합니다.